朝鮮日報 夕刊 二十九日(月)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本社定期刊行物◆ 朝光 女性 少年 朝鮮年鑑

中北支各戰線我軍猛進擊

安徽戰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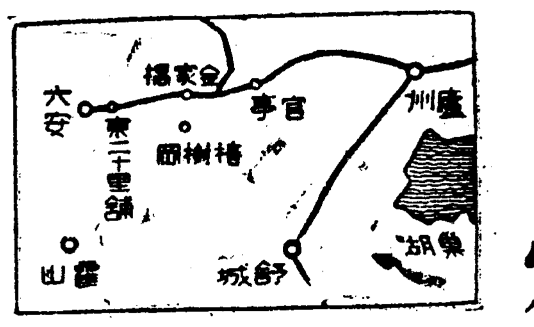
破竹之勢로 頑敵擊退 六安城完全占領
霍山도指呼間에切迫

【○○에서同盟特派員發至急報】二十八日午後五時 六安城南門을 占領한 我八木、高井、堀尾의 諸部隊는 即時 城內에 突入、他部隊와 密接한 協力下에 城內의 殘敵을 掃蕩코 午後十時掃蕩을 完了 完全히 六安을 占領하엿다

【○○에서二十八日發同盟】炎熱과 雷雨와 惡路와 싸우며 一路怒濤와가티 西進中의 我漢口進擊 長江北岸部隊의 先頭는 二十八日午後 벌써 六安城外에 達하야 南方으로부터 攻擊을開始 드디어 南城壁을 占領하고 노피 日章旗를 飜揚하엿다

六安은茶의集散地

【○○二十八日發同盟】二十八日夕陽我○○部隊에게 一角을 占領當한 六安은 淠河東岸에잇는 人口三萬、安徽省西部의小都市로 附近一帶는 農產物 特히 茶의 集產地이다 商業이 活潑하며 北方正陽關까지는 三百里 西方光州까지는 四百五十里 南方霍山까지는 百五十里되는 地點에잇는바 淠河는 西方으로부터 흘러와서 六安에서 左折北流하고잇다



【十里舖에서二十八日同盟特派員發】二十八日午後 我各部隊의 淠河渡河에 依하야 完全히 그退路를 遮斷當한 六安附近의 敵은 大動搖를招來 淠河東南으로 渡河點을 求하야 北方으로 敗退를 開始하엿다

【霍山城外下符橋에서 二十八日同盟特派員發】霍山을 向하야 急進擊을 繼續하는 添田 小野 橫尾各部隊는 二十八日城外一里地點에 肉薄하야 北方及東方으로부터 包圍最後의 猛攻擊을 加하는中으로 霍山陷落은 全然目睫間에 切迫되엿다

【十里舖에서 二十八日同盟特派員發】二十七日午後八時互相前後하야 霍山西北의 敵據點 徐家廟及 但家廟를占據한 添田 小野 橫尾各部隊는 二十八日새벽 霍山城總攻擊을 開始하야 標高一千八百五十米의 重疊한峻峰에據하야 頑强히 抵抗하는敵을 果敢한山岳戰을 展開하야 이를擊滅하고 午後六時一齊히 霍山縣城으로부터 十里되는 地點에肉薄、完全히 그死命을 制하엿다

大官山麓確保코 徐家廟도占領

【大官山麓에서二十八日發同盟】二十七日早曉 施家橋로부터 進擊을開始한 添田小野兩部隊는 大別山脈峻嶺을 前方으로바라며 西南으로 猛進擊을 繼續하야 正午에 벌서 敵據點張家店을 奪取한後 豪雨를 무릅스고 敗走하는敵을 急追 薄暮에 霍山東南方에소사잇는 大官山北麓의 險路를把하야 十字砲火를 퍼부어오는 數百의殘敵을擊破하며 敵陣에殺到 日章旗를 揭揚하엿다 先頭의 小野部隊는 아직도追擊의손을 늦추지안코 午後八時지나 霍山으로부터 三十里되는徐家廟에 突入、이를占領하엿다 又施家橋로부터南進途中鳳凰臺의 敵堅陣을무지르고 大官山南方地區를 迂廻進擊한 吉田部隊及橫尾部隊一部는 同夜八時霍山西側中心據點 但家廟를確保하엿다

紅圧도占領

【○○二十九日同盟特派員發】瑞昌의 不意를 타서 突然瑞昌南方으로부터 進擊을 開始한 新銳○○部隊는 頑强히 抵抗하는 敵을 一擧에 擊滅하고 二十九日午前八時지나 어느듯 瑞昌東南八키로되는 紅圧을 占領한後 그一部○○部隊는 어느듯 ○○으로 猛進中이다

山西戰線

西王山、人和堡占領코 風陵渡로急進擊
黃河北岸完全淸掃在邇

【石家莊二十八日發同盟】我眞野部隊는 二十七日夜十二時半 風陵渡의 敵第一線陣地西王山、人和堡를 攻擊하엿다 風陵渡의 敵은 對岸 潼關方面으로부터 砲兵의協力을 어더 頑强히抵抗하고잇섯는바 我方은 二十八日早朝來 飛行機의協力을어더 漸次敵을 壓迫하고잇서 敵의堅壘를 뭇고 最後의據點으로잇는 風陵渡의 陷落도 마츰내 目睫間에 切迫되엿다

【石家莊二十八日發同盟】二十六日一齊히行動을 開始한 我○○部隊의一部는 二十七日午前十時濟源西方七키로의 線을 進出하엿다 同地는黃河까지 僅히○키로의地點으로 將兵의士氣는益益旺盛하다

【石家莊二十八日發同盟】我○○部隊는 二十八日早朝景義鎭(懷慶西南二十里孟縣과의 中間地區)의攻略을 開始하야 黃河北岸의 完全淸掃도 멀지안흘것으로觀測되고잇다

隴海線一帶敵大動搖

【石家莊二十八日發同盟】○○攻略後○○附近에서 英氣를回復하고잇는我○○部隊는 二十六日夕陽戰機가熟하엿다고보자一齊히積極的行動을 開始하야 黃河北岸으로 侵入하여오는敵을淸掃하고 長驅하야河南으로邁進洛陽北方과邙 民國에잇는重要黃河渡河點을目標하고猛進擊을開始하엿다 黃河를사이에끼고 南北의敵은 意치안흔 我方의態勢에 全然唐慌하야 어찌할바를 모르고잇다 洛陽을 中心으로 隴海線一帶는 大動搖를 招來하고잇다

洛陽敵軍大動搖
我軍黃河渡河體勢에

【石家莊二十八日發同盟】我○○部隊는 二十六日再次 積極的行動을 開始하자 忽然 河南省北部 黃河北岸 中玉村 覇睥等敵陣을突破하고 無人의境을 가듯이 黃河를隔하야 鄭州潼關間의最大據點洛陽東北方面으로肉薄、黃河渡河點○○으로向하야 猛進을繼續하고잇서 洛陽의敵은 我態勢에極度로狼狽되여二十三日來同地一帶의敵은大動搖를招來하고잇다

六安陷落으로 長江以北敵大混亂

【南京廿九日發同盟】揚子江以北의 武漢三鎭防衛의 江北重要據點 六安은 드디어 我日章旗下에 制壓되엿다 大別山脈에의한 敵은 皇軍의猛進을阻止코저 廣州、六安及霍山方面의交通路를 남김업시 縱橫으로 戰車壕를파서 或은 地雷를敷設하고 橋梁을 모두爆破하는等 온갓手段을다하야 防衛에 努力하여왓스나 破竹의勢로 猛進을 繼續하는 皇軍아페는 어이 할바를 몰랏다 六安을 目標로하는 我太田、西大條、毛利、福榮各部隊는 連日에는듯한 炎暑를冒코 破壞된 道路를修理하며 步一步頑敵을殲滅하며 前進을繼續하엿다 一方六安과함께 漢口防衛의 重要據點인霍山攻擊에向한 我栗林、小野、橫尾、岩瀨各部隊는 重疊된山岳地帶를利用하야 反擊해온敵과激烈한 交戰을繼續하며 一路霍山縣城에肉薄하엿다 이러하야 我皇軍은六安을占領하고 霍山陷落도切迫되엿스므로 大別山系及長江北岸의 地區에依한 武漢防衛數十萬은 벌써動搖의 비츨 보이고잇다

事變第二年을마지는 明年度豫算案槪要
戰費、銃後施設完全을企圖

【東京電話同盟】事變第二年의長期戰作戰과및 長期建設에 備하야 明年度豫算編成은 今年度豫算의 節約實行案作成其他의 事情으로 例年보다는저 今日까지 大藏省主計局에 豫算槪算書를 提出한것은 外務、內務、司法等三省에不過하며 其他各省은 目下모두要求經費에關하야 審議中으로 明年度豫算의 全貌가判明되기까지에는 아직相當한日數를 기다리지안흐면안된다 今日까지에 斷片的으로 傳하는바 各省 明年度新規計畫 及 이에 關한 大藏省 歲入計畫을 綜合하건대 槪要는 如左한바 歲出은 直接戰費 內容으로한 臨時軍事費特別會計豫算은 따로하고 一般會計에잇서서도 戰爭目的을 達成하기爲한 國防及 銃後施設을第一主要로하고 도歲入에 잇서서는公債政策을 中心으로 이에反한戰時經濟政策 遂行에 全力을 集中코저하는것이 看取된다

歲出

漢口攻略後의 新段階에 備하야 一般會計及 臨時軍事費特別會計는 모두相當한 膨脹은 免치못할것으로 觀測되나 그때문에 物資需給計畫에 支障을 招來함이업도록 豫算編成方針에 基하야 愼重한 配慮를 하게될터이다 只今 一般會計에對하야 各省新規計畫의 主要한것을 列擧하면 如左하다

一、國防費
陸軍의 國防五個年計畫 海軍의 補充計畫等 既定計畫根本에는 變함이업슬것이나 對蘇關係의緊張 大陸政策의進展 英米軍擴計畫의 膨大化等 新事態에 對應하야 相當한 新經費의增加는 免치못할 것이다

一、銃後施設
內務省의防空計畫 農林省의新馬政計畫 遞信省의中央航空研究所 建設計畫及 航空網擴充計畫等모두 國防上의必要와 直接連結되는것이며 厚生省의傷痍軍人保護 商工、厚生兩省의勞務失業對策等은 모두 當面한 緊要施設인바 그經費가 要求될것이다

一、銃後産業政策費
商工省의輸出振興 重要鑛物增産 農林省의米穀、米麥、肥料等 增産에 關한 各 經費는 銃後施設로서緊要한것으로觀測되고잇다

一、治水計畫
物資需給關係上 그經費에 對하야는 相當히 硏究할 必要가잇스나 內務省에서 計畫하고잇는 砂防工事十五個年計畫에잇서 通貨水害對策으로 그具體化로서注目된다

一、敎育及思想對策
文部省의 靑年學校敎育義務制實施 司法省의 司法保護事業擴充實施 助成等의 經費가 相當히 要求될것이다

一、移民政策
滿蒙移民政策及大陸政策發展에 따라 現在實施中의 計畫은新規經費의 必要가痛感되는모양이다

歲入

歲入計畫에 對하야는 一般特別兩會計를 通하야 臨時軍事費豫算을 包含하야 綜合的要求를 要하는것으로 大藏省에서도아직 具體的方策을 決定치못하고 잇스나 原則的으로 公債政策을 中心으로한 方策에는 變함이업슬模樣이다 다못公債가 年年累增하면 一般的으로 이에 따라利拂費도漸增하야 公債消化力涵養에 對하야는 諸種의對策이必要하다하야 第一로 今年度부터 實施된 支那事變特別稅에 依한 增稅도 이에對한 一助가되나 明年度에는다시 增稅實施를할는지 아닐는지에對하야는 아직池田藏相의 意向이分明치안타 이에對하야는 時局때문에 高稅를 밧고잇는 方面에서는 生産力擴充의 見地에서 反對하는 意見이 잇는데 大藏省의 意見은 現在의 增稅에對하야는 今日國民租稅負擔은「거이」그限度에達하야 이以上 增稅하게되면 오히려大衆負擔을 加重할뿐이며 明年度는 增稅를 中止코저하는 意向이며 도稅制整理는今日과가튼 戰時下에잇서서는 할것이아니라고하고잇스며 따라서 明年度 豫算에잇서서의 經濟政策遂行에 對하야는 金融統制 消費節約 貯蓄獎勵 物價對策等에 對하야一層의 努力이 必要한때문에 經濟計畫化는 今後益益前進을보게될 것이다

時局對策調查會
諮問事項內容決定

時局對策調查會는 來九月六、七、八、九、四日間總督府에서 會議를開催할터인데 第一日은 總會를열어 適當한分科會를 組織하야 第一日부터 繼續하리라하는데 總督府로부터의 諮問事項은大體로如左하다

一、內鮮一體의强化徹底에關한件
二、北鮮의 特殊性에對應하는 方策에關한件
三、朝鮮滿洲北支間의 社會的連繫促進에關한件
四、在支朝鮮人의 保護指導에關한件
五、北支、中支의經濟開發과 朝鮮經濟開發과의 連繫에關한件
六、海運의整備에關한件
七、通信機關(라디오를包含)의整備에關한件
八、航空施設의整備에關한件
九、海外貿易振興에關한件
十、朝鮮民衆의地位向上及 生活刷新에關한件
十一、農山漁村振興運動의擴充强化에關한件
十二、社會施設의 擴充强化에關한件
十三、勞務調整及失業防止救濟에關한件
十四、軍需工業의擴充에關한件
十五、地下資源의 積極的開發에關한件
十六、米의增産에關한件
十七、陸上交通機關의整備에關한件
十八、畜産의積極的獎勵에關한件

長江戰線

武漢三鎭中心으로 蔣、八十萬大軍配置
南潯鐵道의敵退却開始

【九江二十八日同盟特派員發】武漢의危機가 切迫되며 蔣介石必死의防衛는 益益嚴重을 極하고잇는바 確報에依하면 武漢防衛線은 武漢을中心으로 半徑二百키로의 弧線을劃하고 蛇蜒千三百里에 亘하야 築造되여 江南全部隊는 엇지이 不敗의將으로 支那靑年黨의 信望을 集中코잇는 陳誠指揮下에 大冶 陽新 廬山系 德安 南昌에 亘하야 五十個師를、湖北에잇서서는 李宗仁 白崇禧指揮下에 大別山系를 陽方面에 二十五個師 計九十五個師 八十萬의大軍을 配置한것은 日支戰開始以來의大布陣이다

【胡漢城에서二十八日發同盟】情報에依하면 南潯鐵道沿線의 敵主力은 我猛攻에 어느듯後退를 開始하고 南方德安의 主陣地를 死守코저 兵力을 集結中이라고한다 他方飛行機의 報告에依하면南潯鐵道黃老門附近의 敵도續續南下하고잇스며 敵은 德安北方四키로의 南潯鐵道西側駱駝山附近에서 我軍을 激擊코저하는 모양으로 堅固한 陣地를 構築中이라고한다

【○○二十八日發同盟】昨日廬山東南側牛頭山 南側高地의 敵迫擊砲陣地를 掌中에너흔 ○○部隊는昨夜十一時漆黑의 暗夜를 뚤코 再次一齊히砲門을열고 光山東側朱家山方面의 敵陣地를猛擊하며 西進한바 敵은 收拾할餘暇도업스며 砲擊은 廬山을震撼케하며 今曉에이르럿다

南潯鐵道最大要衝 德安運命은風前燈火

【○○에서二十九日同盟特派員發】무릅까지빠지는 泥土를무릅쓰고 破竹의勢로써猛進中인 我○○部隊는 二十八日早朝 馬鞍山鳩公山의堅陣을 突破하고다시 猛進을繼續 그主力은 石牙山頂으로부터猛射하는敵의有力砲兵陣地를 制壓하고 正午에드디여이를占領하고 山頂에노피 日章旗를세웟다 南方저쪽 新墨사이로 德安城을 바라보면서 勇氣百倍되며 同山南麓 綠家鋪로 一擧에나려가서 頑强히抵抗하는敵과 四時間이나 白兵戰을交하고 午後六時마즘내 同陣地를 占領하엿다 一方 右翼部隊는 午後四時 後圖下의 敵陣地로 肉薄하엿고 또 左翼部隊는 岷山山麓을 迂回하야 二十九日 午前九時頃에는 同山麓으로 猛進擊을繼續하면서 石牙山、岷山을 넘어가되여 德安街道는 田田한平地가되여 我軍의進擊은 이에極히容易케되엿다 이와가티 南潯鐵道九江、南昌間의 最大要衝인 德安의運命은 朝夕으로迫到되엿다

瑞昌占領部隊 田家莊에進出

【香港二十九日發同盟】中央通信에依하면 瑞昌을 占領한 我揚子江南岸進擊部隊의一部는 다시 瑞昌에서 武寧을通하는 街道를 西進하야 先頭部隊는 武寧北方五十里되는 田家莊으로 進出하엿다

地上部隊에協力 廬山地區를爆擊

【胡漢城二十九日發同盟】二十九日午前七時부터 ○○機○○臺는 大擧廬山地區大山、大嶺、中岩의 敵主陣地를 爆擊、地上部隊는 ○砲의掩護射擊下에 一齊히 前進을開始하야 飯野部隊의 第一線은 午前七時敵陣가까히肉迫하엿다

赤湖도我制壓下에

【瑞昌二十八日同盟特派員發】揚子江을끼고 赤湖北岸으로 進擊한 我永井部隊는 [illegible]對岸何大一兩日來 十里餘의高地에 築造된多數의 砲兵을 潰滅케하고 가장堅固한高鑑山砲兵은 二十五日夕陽까지에 完全히制壓한後 西進하야 赤湖西北岸[illegible]南에 達하야 赤湖全部를 그制壓下에두엇다

체코問題惡化로 英政府重大協議
獨逸側態度緩和를慫慂

【倫敦二十八日發同盟】주데텐問題의 重大化로 倫敦政界는 最近 一兩日來 極히 緊張한 비츨보이고 잇는데 英國政府는 此間에잇서 事態의 圓滿收拾에 萬全策을 講究하고잇는모양으로 二十九日에는 체임벌렌首相의 倫敦歸還을 기다려 체임벌렌首相、할리팍스外相을 中心으로 짜이먼藏相、다프·쿠-퍼海相、 [illegible]兩政府顧問等을 交하야 重大會議를 開催한後 繼續하야 翌三十日에는 閣議를 開催하고 체코問題에 對하야 英國政府의 態度를 協議케 되엿다 英國政府가 如斯히 체코問題의 推移를 갑작이 重大視하게 된것은 獨逸政府가 유고슬라비아、루마니아、蘇聯等三國政府에 對하야 獨逸이 체코에 對하야 行動을 開始한境遇에 中立을 직힐는지 어떨는지 意向을 打診하엿다는 情報가 各地英國外交代表로부터 報道된 結果라고한다 아바스通信社倫敦支局의 權威잇는情報라하야 傳하는바에 依하면 英國政府는 주데텐問題의 惡化는 獨逸의 强硬態度에 起因한 것이라하고 外交機關을 通하야 極秘裡에 獨逸政府에 對하야 現在의 强硬態度를 緩和하도록 [illegible]

時事解說

陳誠

[illegible] 蔣介石의 右腕이요 武漢衛戍司令인 陳誠은 [illegible] 浙江사람으로 今年 四十三歲 保定軍官學校를 卒業하고 蔣介石에게 信任을 밧아 黃埔軍官學校敎官에 選任되엿다 그後 國民革命軍의 第一師副師長、師長、다시 第十四師長 第十八軍長을 歷任、昭和六年以後에는 江西省에서 共産軍討伐에 [illegible]하얏다 戰法은 매우 [illegible] ◇ [illegible] 그해 年末에 [illegible] 北支方面에서 [illegible] 戰火가 上海에까지 퍼지게되매 上海戰線에서도 活躍하엿다 그後 軍政部長이되어 蔣政權의 抗日戰에 參謀하고잇섯다 [illegible] 第一線의 人物이라고한다

駐獨英大使歸國

【倫敦二十八日發同盟】駐獨英國大使헨더슨氏는 本國政府의 命令으로 二十八日 午後急遽伯林을 떠나 三十日의 英國閣議에 參列하게되엿는데 大使는 二十九日할리팍스外相과 會見、체코問題에 關한 獨逸政府의 態度에 對하야 重要한 報告를 할 터이다

富田、杵村兩大佐 少將으로進級

【東京電話同盟】東部附近의 戰鬪에서 戰死한 富田正幸大佐以下 三十名은 各其 進級의旨 二十九日 官報로써 發表되엿다 그中主要한者는 如左하다

陸軍少將 富田 正幸
陸軍步兵少佐 岡本 岩男
同 下川 榮一

陸軍步兵中佐(當時) 北支戰線에서活躍中戰病死한 杵村大佐는지난 一日付로써 少將에 進級되는旨 二十九日官報로써 發表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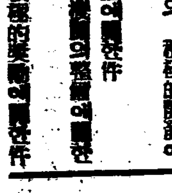
陸軍少將 杵村 久藏

人事·集會

◀鹽田正洪(殖産局農村課長)新任人事次來社
◀黃義敦氏(本社鄕土文化調查委員)江原、咸鏡地方出張中二十九日朝歸社
◀洪起文氏(同上)黃海、平南地方出張中二十九日朝歸社

八面鋒

◇雷管의 點火는 刻一刻延燒 火藥庫 체코의 爆發도間一髮。
◇全歐洲는 恐怖로蒼褪、老帝國은 臺로對備에 食息。
◇日沒이업다는 유니온잭크旗 落日이업단은 자랑속의 苦悶。
◇平和外交基調를 英藏相 獅子吼、侵略品을 維持한엔『平和』자 置出處方。
◇對英對蘇、國府는 三元外交로 一枚舌은 蘇張以來의 國寶。
◇時局對策調查會成立、委員은 齊齊九十七士。
◇調查는 對策의基礎、對策은 實施의 原案。
◇脫兎가튼 立案은可、斬新가튼 實行은 不可。
◇關北에 又復洪水、蒼天은 無心、蒼生은 寒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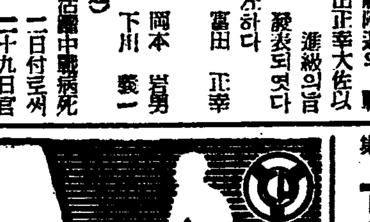

補血·强壯·强精·特效劑
판토크린
(血精鹿茸補)
京城·鍾路 發賣元·輸入八
共生藥業株式會社
電話光化門 二五四七番
振替京城 二二〇〇二番
定價 內服液 30CC入 ¥7.50 注射液 10管入 ¥9.00

京城鍾路 東順德 絹綿布 現金問屋
秋冬用新柄品 新入荷具備 時勢絶對低廉 地方卸大歡迎
SILK AND COTTON TOUDJUNTOKU
電光 三六二 六一七

支所長招聘 明治生命 京城支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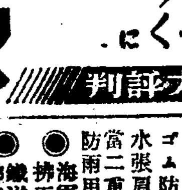
事業案內 朝報案內

音樂敎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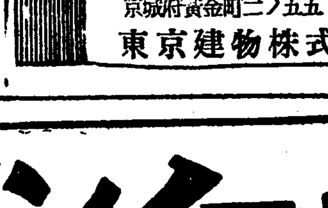

非常時의 足
決코 비가두렵지안타!
山口の自轉車

京城 中等豫備專修學院
京城高等簿記學院(後期) 生徒募集

名古屋市中區 柴田商店 電話本局 2131


小兒用はおいしいシロップ
百日咳に コデス
にくそんぜ
とてもヨクキク
で大評判
本舖 合資會社 笹岡省三藥房 大阪市北區中崎町

中古モーター高價買入
新舊切刃及家庭用ウトンキ販賣
中村鐵工所販賣部
京城觀水町電光一五九四番


建築設計 建築請負 月賦 普通
京城府黃金町二ノ五五 電光 1681·1381
東京建物株式會社京城支店

名古屋市東區清水町局前
松山合名會社
國防色セル防護團服上下 五圓八十錢
ス·フ國防色セル靑年團服上下 五圓八十錢
陸軍茶革上靴 四圓二十錢
海軍陸戰用黑色編上靴 四圓二十錢
改造編上靴 黑革短靴 四圓二十錢
鐵道省黑作業服上下組 二圓五十錢
鐵道省紺小倉詰襟服上下 二圓五十錢
海軍黑防水布レンコート 三圓九十錢
鐵道黑防水布レンコート 五圓八十錢
海軍省黑色防水布外套 四圓九十錢

工業案內
中古加工品の大安賣

チウインガム
アマ黨も! カラ黨も!! 飲み黨も! 喫煙黨も!!
凡ての紳士よ! 淑女よ! 御身の爲にか! 彼女の爲にか!
アイエム チウインガムに 依つて歯の清掃を なし明朗な 人生になれ
今のガム
京城府總發賣元 京城公司
製造元 マルイマ製菓場
Maruima kokusan gamu

清津府內에豪雨 一千八百戶가浸水
南北行列車運轉休止

【清津에서本社特派員吳快一發電】 이십팔일오후한시부터 또다시호우가 습래하야 오후여섯시까지 절통다섯시간동안퍼붓은 폭우는 제일차, 제이차의 수해때보다 못하지안하야 그손해는 막대한 모양이다 청진(淸津)부내의 피해만으로 판명된것은 침수가옥 일천팔백호에 달하고 시내 각요소는 교통이 두절되엿기 만히 자동차, 뻐쓰(톱)은 꼼짝을못하고잇는형편이다 겨우복구작업의 도중에잇든 제지의비참한 정상이란참상에 달하야 그전도가 우려된다

【清津에서本社特派員吳快一發電】 제삼차 함북일대의수해는 그전모가 아직판명되지안핫스나 호우가 시작된 이십팔일오후일곱시현재 정보에의하면 국부적으로 청진, 수성(輸城)간 청진, 함흥간철도는 각각불통되엇는데 이는 선로가 범람한때문이라한다 그래서 청진역발 이십팔일오후네시이후의 남행열차와 북행열차는 운전을중지하얏스며 청진역착 오후네시이후의 각열차도 수성 또는 함흥등지에서 불통되어 일부는 되도라오고 일부는 정차하고잇는중이다 아직도호우는 끄치지안코 계속하야퍼부어 일반의우려는 대단하다

(淸津) 「」이란 소년은 이십칠일아침에 집을 나가서 삼일이 지난 지금에도 소식이업다고 수사원이 종로서에 드러왓다 집나간 이유는공부가 잘되지안허서 가정파교의걱정을 사다못해 나간것이니 소년의 신변에 불행이나잇지안흘가하고 소관종로서에서 시내각처에 수사를 시작하엿다

災地從業員診療費 鐵道局救護班派遣

철도국에서는지수해지혜산선파 백무선의 철도종업원 가족의보건위생을 위하야 예방의 크레오소트환 매좌(梅肉)엑기스 크로르칼키등 약품을 현지로보내고 이십칠일에 경성철도병원으로부터 의사와 간호부를 파견하엿다한다

金津江汎濫으로 新上再次水國化

【新上支局廿八日發電】 금진강(金津江)의 수위는 점점 높아저서 지난번 홍수에 파괴되엿던 제방은 다시 범람하야 시내는 대반이나 침수되고 지금까지 피난하고잇든 신상역과의 통행도 두절되엿다

【新上支局廿八日發電】 두번재나 수마에 유린된 신상(新上)은 간신히 남어잇던 가옥전부가 침수되여 오천여명의 피난민은 「차이편」 소리와함께 산과 신상역구내 또는 신호리(新浦里)의 제방에 피란하고잇는데 서로히 연락도두절되고 교통조차 두절되엿스며 신상역으로부터 오백메돌지점의 선로가결궤되여 탁류가흐르고잇으며 그리고 이천여보에달하는 순평(順平) 문산(文山)방면의 농작물은 보이지안코 탁류가흐르고잇을뿐이다

文峯新上間線도 線路浸水로不通

【元山】 아오래간에 전통된 함경선 원산·함흥간은 복구되자 만인 지난이십팔일 오후한시부터 문봉(文峯) 신상(新上)간의 금진강(金津江)의우에잇는 토표(土俵)로만든 선로우에 물이흘러서 또다시 불통케되엿다 죽 이십칠일밤부터 금진강상류지방에 상당량의 비가온양으로 경계된 금진강제방은 원래 증수된물이 흘러나려와서 금진강양안의 복구선로를 막흘리가게 되엿다한다 그리하야 동일 경성역에 린전해 급행열차도 원산까지만오고는 더가지못하엿다 동일오후열시 이십분 원산에달한 현지의보고를 보면 약다섯시간만에 한자반이나 감소되엿는데 감소가 계속되지안한다고 해전도는 확실히 알수업는 모양이나 여하간 그복구도 쉬이 될것가지 안흘것인데 그복구까지 불행 오백여명과 오백여명차는 원산까지만 운전하고 오백삼과 오백구열차는 왕장까지운전하게되엿다 그리고 경성행오백십과 오백사열차는 왕장에서 떠나고 오백팔과 오백륙열차는 원산에서 떠나기로되엿다

이와가티 수마의 위협하에 열차를 보혹이 중단하게된 원산(元山)에서는 이십팔일 전원(前原)소장이하 간부가 철야하면서 한시라도 바삐전통케하려고 구수의하며 복구대책을 세우고잇는중인데 시국상 중요성이배가한 함경선의 복구는 그무엇보다 속히하야 교통기관의 사명을다하기로 되엿다

【鐵道局發表】 함경선은 이십팔일부터 또수해로말미암아 불통중인데 철도국에드러온 정보를 보면 지난번의 수해복구장소인 문봉(文峯) 신상(新上)사이 원산기점(元山起點)팔십사키로부근은 약백미돌사이선로우에 한자가량이나 물이차서 길바닥사십미돌이 유실되엿고 이십팔일오후세시사십분에는 물이 작구더 부러서 길바닥 약사백미돌이유실되엿다 또그날오후 여덟시에는 그구간 원산기점팔십사키로부근선로약사백미돌이 침수되엿다 이십구일아침 열두시현재로는 물이흘러서 부근에는 물이 줄엇스나 아직 불통되고잇는데 언제복구될지 아직알수없다 저 복구공은 신상까지사이에 되도록 완전하고잇다

生氣嶺鏡城間 列車不通

함경선은 작이십팔일오후부터 호우와도는 선로의침수로 생기령(生氣嶺) 경성(鏡城)간이 불통되엿는데 방금전력을기우려 복구작업중인바 명일중에는 복구가될모양이다 이십구일 저녁에 개통될 모양이라한다

清津輸城間 今夕復舊

이십팔일의 수해로 불통중이든 청진(淸津) 수성(輸城)사이는 오늘저녁에는 복구될 모양이다

輔仁小學校生失踪

신교정(新橋町)일번지 보인소학교(輔仁小學校)오년생인 진영선

各地와의交通杜絶
道路, 假橋의被害甚大

【清津에서特派員吳快一發電】 철도교의 가교(假橋)대부분이 이번비로 떠나려가버려서 함북지방일대의교통기관은 전부마비되엿다 청진(淸津) 나진(羅津)사이의 정기자동차를 비롯하야 청진 수성(輸城)사이의 뻐쓰는 그냥 두절되엿다 더욱이 청진나남(羅南)사이는 지난번수해에도 어지도로가 물이며 각지가모두고립되어잇다 벼는게이엇스나 피해는 만흘모양이다

新裝煙草 愛羊牌 滿疆에進出

전매국에서는 미리부터 몽강지구(蒙疆地區)의 목수성에 가는수출연초 장묘(愛猫)표의 자매품을 만들라고 조사연구중이엇는데 요즈음 그것의 결정을 보게되여 제품중이다 신제품은 애양패(愛羊牌)로서 몽고사람들에게 사랑을받고잇는 양을 그린것으로 이달말에 위선백칠십오만봉을 발송할터이라한다

產金獎勵電氣工事 成川陽德間에着工

【陽德】 조선총독부광공국에서삼천만원예산으로 전선각지에 산금장여전기공사를 (產金獎勵電氣工事) 착수한다함은 기보되엿거니와 성천양덕간에다(成川陽德) 방금서선합동전기회사에서 (西鮮合同電氣會社) 거치공사에분망중이라는데 양덕지방에 유망한 중석광구만 사오십처이요 성천지방에는 금은광이 칠팔십구여이나되는 광업자들은 무한한희망을가지고 벌야적활동을하고잇는중이라한다

城津驛附近서 列車自動車衝突
乘客運轉手等重傷

【鐵道局着電】 이십팔일오전두시 오십팔분경 청진(淸津)으로부터 경성으로가는 제오백팔십이열차가 성진(城津)제일건널목에 이르럿슬때에 성진승합자동차회사소유의 자동차를 운전수 양유원(梁有元)이가운전하고 승객 다섯명을 태워가지고 운전하야 그열차의아래 가로건느려다가 부딧치여서 승객 성진군학성면 장동(長洞)(?) 두명과 운전수는 중상을 입엇스며 다른 승객 세명은 경상을 입엇다 그자동차는 부딧친 즉시에 『까솔린』에서 불이

廣東虎疫益猖獗 死亡者七千四百

【香港二十八日同盟】 남지나광동(廣東)서는 전부유행되고 부터 그뒤더욱심하야 오늘까지에 병에걸린 사람은 이만일천오백인이나 되며 죽은사람은 칠천사백인이나된다한다 광동성정부에서는 어매문에 방역비(防疫費)팔만원(元)을 지출하고 방역에 힘쓰고잇다한다

教育費分擔問題 雙方意見未解決

【新京】 재만조선인교육비분담에 관하야 이십팔일 총독부에서는 만주국측 개천(皆川)교육과장과 총독부 수천(水田)재무국장 송원(松原)외무부장등과 협의를 하엿는데 양편사이에 의견이 상당히 현격되여 해결이 곤난하게되엿다 어리하야 만주국에서는 재검토를한후 다시 회담을하기로 되엿다 그런데 재만동포의수는 팔만일천명으로서 만주국으로서는 신사년도에는 약어월이팔 예산을 증가할 필요가 잇을것으로 상당히 다액의 증액을 요구하고잇는모양이다

定平一帶에도豪雨

【定平支局廿八日發電】 이십칠일 밤부터 나린 호우로인하야 이십팔일은 전력을다하야 정평일대에 대홍수가 습래하야 정평, 신상(新上)간과 신상, 문봉(文峯)간의 철교에 해수는 다시 위기에 빠지하엿스므로 신상은 다시 불통되고 이날오후한시 정평과 오백사열차는 한량들 도라갓스며 금진강(金津江)은 이메돌 (이십팔일 오후다섯시 현재)이나 증수하야 신상은 다시 위기에 빠지엿스므로 신상시민들은 전전긍긍하고잇다

신상시민들은 피난하기에 엿대은 잘를 이루고잇다 정평일대의 농작물은 제일차홍수에 큰피해를 입엇스며 호우는 아직 기승중이다

非常災害에對策할 罹災救助基金令
卅日附 施行規則과同時에公布

조선은 지리적관계로 해마다 수해(水害) 한해(旱害) 풍해(風害) 랭해(冷害)등의 천재가심하야 금년에도 관북수해가 자심하고 또남조선의강우이 또한 적지안흔터인데 총독부에서는 재해의방지에대하야 흥은치산(治山)에 흥은치수(治水)에 예의노력하고잇스나 이불가항의적 천재에는 결국 그피해정도를 경감할에 불과함으로 그재해방지책과 함께 이재민의 응급구조시설에 대하야도 사전에 미리 생각하여둘 필요가잇다 그러나 현재의 각도 구조비 지출재원은극히 결핍하야 재해가 나는때마다 국비지출을 하게되는 실상에 잇스므로 그전부터 도(道)에 이재구조기금을 설치할계획이 진행되고잇엇바 이번드디여 조선이재구조기금령이 삼십일부로써 공포되게되엿다 이와동시에 그시행규칙도발포되며 이에 이재도가 확립되여 금후기금조적적된 다음에는 비상재해에 도지사가 신속하게 응급구조를 할수잇게되엿다

이기금조성의 주요한재원은국고 보조금과 도세(道稅)의일부 증징(增徵)으로하는것인데 금후 십년간에 일천오백만원의 기금을 적립할예정이라고한다 이기금에 의한구조비의 지출범위는 이재민의 응급피난소비 식료비 피복비 치료비 매상비 응집맨드는비용 생업비 학용품비 운반용구비 인부비등이다

그러나 모든재해의 구조를이 금만으로는 도저히다할수 업는경이롭게 금후라도 역시일반의 보상조를 기본으로 삼을터인데 특히 이번관북대수재에 대하야 일반의만흔 동정구원이 잇기를 바란다고한다

被害者陳述模糊
元町質屋怪漢侵入事件

기보=부내원정(元町)이정목 질신(信) 전당포에 사건에 대하야 소관본정서에서는 사건을 중대시하고 범인엄탐 상청한지 이틀이 지낫스나 괴한의 정체는 「미오」

중용의자까지 엄거하여 취조를 하엿스나 아모단서도 엇지를못하얏슬뿐아니라 피해자의말에도 상한점이 만흠으로 동서에서는 강도나 괴한의행동이아니라 단서도엇지를 못하엿다는데 피해자의 보고에의하면 괴한이침입할때는 초저녁인데도 범인은유유히 현관으로 들어와서 자기손으로 잠근방에들어와서는 불나좃치 리나는 피해자를맞이시 좃차가서 양편칼다리에 칼자의일주일가량의 상처를 내고는밧게서 잠근문을열고 다라나다는바 이로써보면 금품을 훔칠목적으로 잠입한것이 아닐뿐아니라 피해자는 상처를 당하면서도 소리한마디아니질르고 더구나 범인의인상을 모른다는것이 분명하므로 동서에서는 치정관계로원한을 품은자의 소행이 아닌가하고 잇다 피해자는 남편이 동경에 가 고향에 돌아가잇서 오래귀국치안흔중이라는바 그동안 정에빠진자의 소위인지 상처를보면 전여성의가업는것이로보아 흥으로본거하는남편과리혼을하기위하야 정부와 공모하고 거짓강도를 꾸민것이아닌가 하고추측된다

惡德家主는膺懲
京畿道保安課管內狀況調查
取締의標準을各署에內示!

도시의 차가난(借家難)을 기회로 집세를 함부로 올리는악덕가주(家主)들에게 응징의철퇴가 내린다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도시의 차가난은 날로심해만가고잇는테다가 특히 이지음은 시국관계로 건축자재(資材)의 결핍이 심하야 돈가진사람으로서도 마음대로 집을지을수 업게되여 집하나 방하나 어더살기가 하늘에별따기보다도 어렵게되자 이틈을타서 집세를 함부로 올리려는 악덕가주가 적지안타 그래서 이정을 우려한 경기도보안과에서는 시국이 시국이니만치 단호한처치를 강구해서 총후국민생활의 명랑을 기할필요가잇다해서 관하각경찰에 통첩을발하야 집세를올리는경우에대해서는 엄중한처치를 가하기로하엿다한다

그리고 일면에는 얼마전부터 관내각경찰서를통하야 조사한집세의상황을 총합하야 어떤표준을 내정하여가지고 함부로집세를올리지못하도록 어떤표준을내정해둘모양인데 대체의방침으로 종래의집세를 다시올리는것에대해서는 아주엄격히 억제하도록 할작정이다

『中央新炭』發刊

부내마장정(馬場町)에잇는 조선신탄동업신사에서는 신탄업계의 적당한 주장과 공정한여론을 환기하려는 취지에서 이번에 월간으로 『중앙신탄(中央新炭)』을 발행하야 그제일집 제이집이 나왓는데 정가는 이십전이다

自動車運轉手及修理工募集

부(職業輔導部)에서는 북지방면으로 보내서 자동차운전수 약간명 수리직공 약간명을 모집하는데 일금은 오는구월일일까지에 이력서 두통과 운전수면허증(免許證)을 가지고지원하는것이 조타한다

룸펜部隊 百六十名檢擧

【釜山】 부산부내에서는 최근 전시에 경찰이 엄중한 취체를 하고잇는터이며 부산경찰서에서는 이십일부터 다섯시사이에 변두리부두 시내 각소를 일제히 탐색하야 『룸펜』을 전격적으로 검거하엿는데 총수 백육십명에 달하얏다한다

重石盜掘黨事件
東署管內에波及
前日의某高官도登場

일전부터 동대문서에서는 어떤 중석(重石)도굴단에대하여서 전시가나흘 계속취조중이든바 이미경성시내만하더래도 얼마전 부터 중석, 불정 두경찰서에서 취조하는한편 부내장신정(長信町)압구정의 배모(朴某)(?)와 배익만(裵益萬)(?)의 의외인물들은 취조에따라서는 사건은 어떤범위에까지 버리저나갈지 알수업서 동서상거에 열대공황을야르키고잇다

天氣豫報

槪況 朝鮮內陸의 氣壓配置는不安定하야잇서 東支那海朝鮮中部滿洲, 日本海等에는 弱한低氣壓이 續出하고잇다 朝鮮에는 不連續線이 잇스며 高氣壓은 千島海上으로부터 本邦으로퍼저잇고 弱한颱風이本邦南海上에잇다 朝鮮은 흐려저잇서 處所에따라서는小驟雨가잇다 滿洲도 大體로 흐리기쉽고 關東以西도 흐려저잇서 南岸에는 處處에 따라 小驟雨가 잇스며 東北地方以北은 天氣가良好하다

豫報 京城地方의 오늘밤은 曇小雨模樣이며 明日은 개엿다 흐렷다할터이다 京畿道全區도 以上과갓다

昨日最高	二六度三
同 最低	二〇度一
今朝最低	二〇度九
今日正午	二七度一

神戶一中에게惜敗·崇商의雄圖挫折
全日本中等學校野球大會

【大阪發同盟】 第二十四回全日本中等學校蹴球大會第四日 第二回戰 神戶一中對崇商의 試合은 二十八日午後二時부터 甲子園에서擧行 神戶一中의 先制와 崇商은 前日에 比하야 氣力이 不振하야 前半에 二點을 내준뒤 終始劣勢로 崇商은 惜敗하고 말엇다

神戶 2 (2·0·0) 0 崇商

【崇仁】 【神戶】 GK FB HB FW [illegible]

朝鮮軟式庭球優勝 朝滿對抗第二日

【新京二十八日同盟】 朝滿對抗 [illegible]

硬式庭球朝鮮軍快勝

【新京二十八日同盟】 [illegible]

朝鮮水上敗退 白鷗平泳에一着

【新京電話】 朝滿水上競技對抗은 二十八日午後一時부터 大同公園 新設水泳場에서擧行하야 七十大對五十八로 滿洲軍이 勝利하엿는데 이날의 各種目成績은 다음과갓다 [illegible]

開城水上大會經過

【開城】 本報開城支局後援의 開城水上競技大會는 二十七日 午後一時부터 府營풀에서 擧行하엿는데 平泳 二百米에 一着한 洪官玉(?)君은 二分五十六秒五란 新記錄을 作成하엿다한다

京畿陸上競選 九月十一日에開催

京畿陸上競技協會主催의 京畿陸上大會는 九月十一日午前九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할터인바 今年度全日本陸上競技選手權大會에 出場할 選手도 決定하리라고한다

運動界人事

◇李榮敏氏(朝鮮籃球協會主事) 지난二十五日 大阪서열린大日本籃球協會主事會議에 參席하엿다가 二十八日歸京

色鉛筆

남녀 관계에 부드러운 친 자유의 웨침은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의 열매를 비저내다 마침내 이러한 풍조가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을 [illegible]

第三回 新京測量學院 生徒募集
◇出願期 九月十日限 ◇考査日 九月十四日 ◇開學 九月十五日
◇科目 平板·圖根·高低測量·製圖·數學·實習·滿洲國
◇學則請求要二錢郵票 ◇新京興安大路 ◇振替 新京三一八四五番

新學期開始 京城中等學院
中等科·中等學校入學準備科·商科·簿記科
(規則書請求要三錢切手) 京城府林町八二番地 電話本局六五三七番

生徒募集 京城工科學院
測量科 ◇出願 昭和十三年九月三十日迄 ◇考査 昭和十三年十月一日
◇六個月卒業 ◇學則請求要三錢切手 京城府蓬萊町一九五 電話光化門一七三三番
◇科目 土地測量學、測量法規、計算、製圖、伸縮圖法、製板、實習

嬉しいお知らせ
洋裁와手藝에 면뭇이든지아는 「洋裁講習錄」
內容見本과 月刊 洋裁之研究 三個月分無代進呈
東京高等技藝學校
申込所 東京市牛込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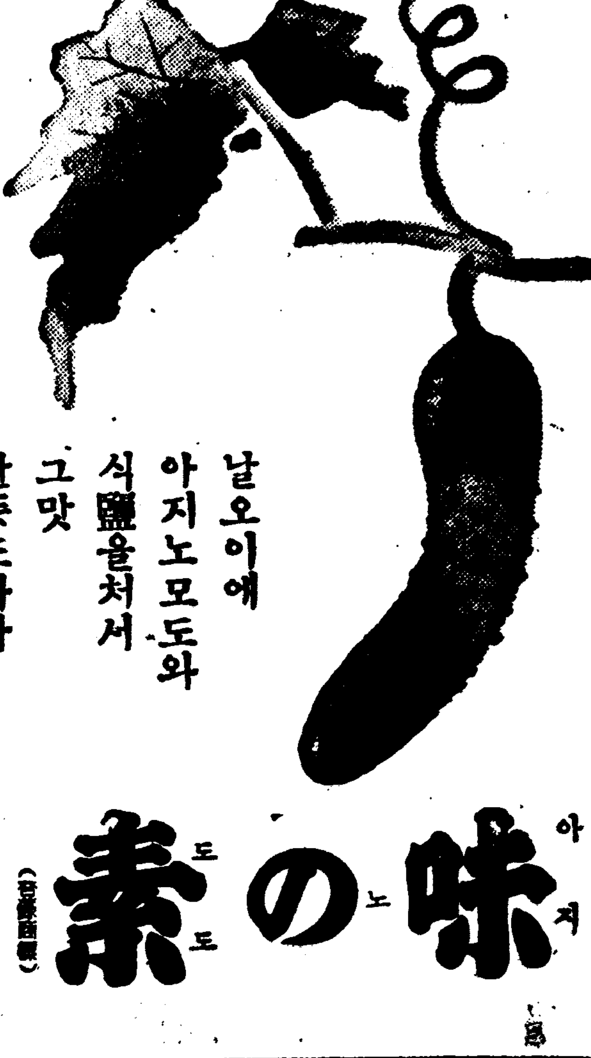
時間正確 鐵道省御用の ウオルサム エルジン
十ヶ年保險付 セイコーシャ地方時計部 東京淀橋區上落合二ノ四四番
時는金이다 特別써-비스 市價三分ノ一
★十八金HK腕卷 クロム側腕卷 クロム側懷中 [illegible]

父朴正堯儀病氣中今月二十七日午後七時逝去玆以訃告
追而今月三十日午前十時로十一時까지新義州眞砂町自宅에서永訣式擧行
昭和十三年八月二十七日
嗣子 英根
弟 英俊
正吳 泰煥 鼎孫 金煥
親族代表 朴熙迪
友人代表 李昌河 卓允涉 崔京範 林

曾祖母淑人交河金氏以老患本月二十八日午後二時別世玆以告訃
發靷 九月一日午前八時 葬地 [illegible]
昭和十三年八月二十八日
承重曾孫 金英秀 [illegible]

本報咸南支社 咸興府大和町二丁目四八 電話二四三番

皮膚病에第一잘들어요!
◆濕疹、버짐、땀띠
◆진무른데、무좀、濕疹
◆옴 방 습 진 부 름
各藥店에여읍니다
家庭에溫泉·特許製品 六一〇ハップ


날오이에 아지노모도와 식염을처서 그맛 산뜻도하다
味の素
株式會社 鈴木商店

입으로들어오는병을막고
정신을상쾌케하는!

カオール (가오ー루)

衛生口錠

口中殺菌劑

國民精神總動員

体位向上을하여야할이때에!

全鮮有力藥店파協力하야

銃後의衛生保健運動을開催하옵니다

가오ー루는 늘 여러분의健康을保護하고 모든病을예방하는藥効를가진까닭에 恒常 衛生保健思想의普及化에盡力하여왓읍니다마는 今番에도 全鮮有力藥店의協力을얻어 또다시 開催하오니 아모조록 讚同하여주시사 戰時下의保健衛生을위하야

음식을 자신후 입맛이 나도록

사람모힌곳에 계실때 구취에

출입하실때 기차 전차 여행하실때

피곤하실때等에 꼭두세알식복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衛生保健運動期間파方法

病菌이蔓延되기쉬운殘暑의八、九月에 全鮮有力藥店에서 (포스타ー가걸린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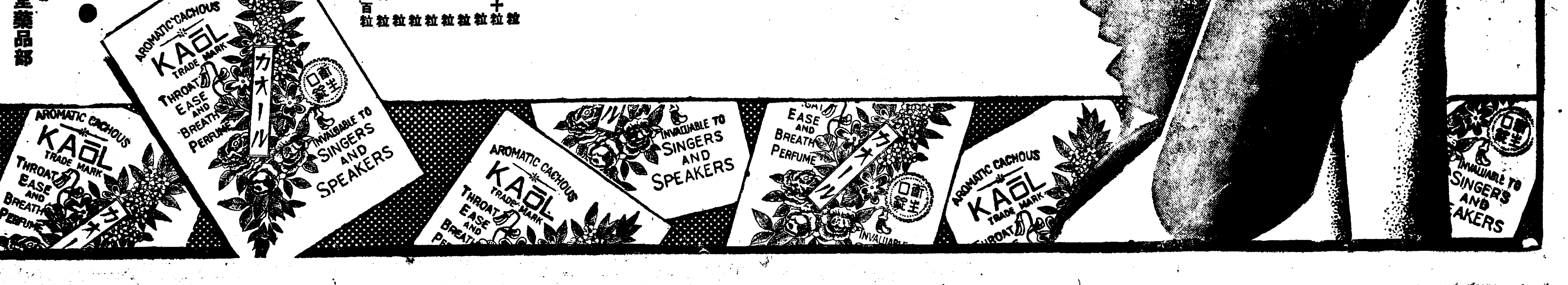
カオール二錢包 普及用 一個 進呈!

☆全鮮販賣店各位께急告
本計劃을아직처모르시는販賣店께서는 속히도매점에問議하여주시기바랍니다

定價와容量

袋入	(十錢)	百粒
同	(二十錢)	二百五十粒
携帶用防濕瓶入	(三十五錢)	三百粒
포켓트容器付	(三十錢)	三百粒
御勾玉形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鞄形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美術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保健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德用瓶入	(五十錢)	八百粒
同	(一圓)	二千二百粒

本舖 東京市日本橋區水天宮前 株式會社 安藤井筒堂藥品部



家庭

이부자리건사는 느진여름이제일

껍데기는깨끗시빨고 요솜은소독잘합시다

이제부터는 삼복더위때와 달러서 습기가적고 자외선이 강하기때문에 일광소독하기에 가장적당합니다.

여름장마철을 지나고난 의복 이부자리들은 시월경까지는 그냥두지말고 한번 버려내걸어서 열흘동안 곰팡이나고 땀냄새나는것을 업시하고 무슨얼룩이가 진것이라도 오래되기전에 다빼여 두어야합니다

이부자리에는 우리눈에는 뵈이지안치만 무수한미균과 몬지가 무더서 불결한것입니다 늘 버려내어걸어서 풍양을 시키면 솜도 폭신해지고 일광소독이 잘되여 ᄌ 니다 이부자리는 늘 내거는것이 제일조흔 청결법입니다

호이불을 뜨든다음 아숭엽시로부터 오후네시까지 널엇다가 네시이후엔 반드시 거더드려야지 그러치안흐면 누기가 찝니다.

그리고 모기장도 이부자리와 함께 내걸어서 풍양을시히면조흔데 연두빗 모기장은 물색이 날기쉬우니 무슨옷이불가튼것으로 한겹덧기 씨워서 널어서요 방석들도 솜을빼서 잘말려서 솜이 부푸러 오른다음 껍데기를 빨라 다시 손질해서꾸밀것입니다

모기장을빨때는 절대로 부벼서빨면 안됩니다 가루비누를 큰 빨래통에다 풀고 고기를 쥐고서 그냥흔구어빱니다 그런다음 맑은물에 몃번이고 빠는데 몹시 물비치 빠지거든 처음에잡깐 초물탄물에 당거두엇다빨것입니다

벼개들도 잇끼를떼고 버례말려서 다시 새잇끼들을 껴듭것입니다

사람의 젖

납으로맨든 분바르면 애기가뇌막염에걸려

❶ 醫師 趙漢英

젓먹이아이에게 제일조흔 사람의젓도 아이가점점자라서 팔구개월이되면 사람의젓만으로는 완전한발육을 바랄수업는것입니다 즉이러케큰아이에대해서 젓속에는 섭분만으로는 아이의영양을 충분히하기에 부족한것입니다 이때부터는 다른 음식물을 조금식 석거먹이기 시작해서 젓을끈기에는 완전히 젓을 떼주도록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사람의젓을먹고 잘자라든아이도 젓을이 지내도록 젓을 떼주지안으면 몸구게는를 지안코 토실토실하든살은 멀렁멀렁하게되며 또는 집안사람들이 알지못하는동안에 점점 어린애의혈색이 낫버지고 얼굴빗이 누래갑니다 이것은 웨이러케 되는가하면 사람의젓속에는 철분(鐵分)과 그외의성분이 어린애에게대해서 매우 부족하기때문에되는 빈혈입니다. 또어떤아이는 이때에 늘 보채기만하고정응질내고 신경이 몹시피민해지기도합니다. 그뿐만아니라 여름동안에 만히걸니는 젓먹이아이의 위장한소화불량은 특히젓을이 내지도록 젓만먹는아이가 잘걸니고 걸니기만하면 반이상은죽고맙니다.

이상에말한것과가티 젓을까지에 젓을떼주지안으면 아이는 큰해를받는것이니까 어떠케해서든지 젓을까지에는 완전히 젓을 떼주어야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옛날부터의 관습에 저저서 아이는 젓을오래 먹어야 튼튼하다고해서 사오세된아이에게도 젓을빨리고 심하면 팔구세된아이까지 안나오는 젓꼭지를 빨리는분도잇습니다. 또 젓을까지에는 완전히젓을 떼주어야한다하면 젓을떼까지는 젓만먹이다가 그이튼날부터는 또 곳 죽을먹이는줄만아시고 그어린것을어떠케 젓을떼주는 단말이냐고 반대하시는분도 업지안어잇습니다 그러나 우헤말하는거와가티 젓을까지에 완전히 젓을떼지못하기때문에 아이의몸에 여러가지장해가잇다함을 아이상 우헤는 젓떼주는 방법을 잘알아가지고 제때에젓을 떼주도록해야 할것입니다.

젓을떼준다고 지금까지 먹든 젓을 갑작히 떼버리고 죽이나 밥을먹이면 배이면 배다 천이면천다실패하고맙니다. 어린애의 위장이 약하니만치 난지칠팔개월서부터 다른음식을 조금식먹이기시작해서 서서히 분량도느리고 음식물도 차차여러가지를 주어서 젓을까지에 완전히 젓을떼도록 해주어야 젓도제대로 질렐수잇고 아이의발육도 조흐게될것입니다.

다음에는 젓떼는법에대해서 간단히 요점만 드려서 말씀하겟습니다.

(1) 젓떼기 시작하기전에미리 젓먹이는시간을 규칙잇게 네시간마다 한번식 먹이도록해야합니다.

오전여섯시에식전젓 오전열시에아침젓 오후두시에낫젓 오후여섯시에 저녁젓 오후열시에밤젓 이러케 하로에 다섯번 젓을 먹입니다.

(2) 난지 삼사개월서부터낫젓을먹일때 사과나, 토마토나 귤가튼 과실을 강판에 갈어서고 흔헌걸으로 걸는과실즙을 처음에는 조그만한 찻사시에 하나쯤먹입니다. 며칠동안 먹여보아서 아모고장이업스면 조금씩조금씩 분량을 늘립니다.

(3) 난지 칠개월서부터는 아침젓과 저녁젓을먹일때에 카르켄트나 조흔빠스켓트와 채소국물을 조금씩 먹이기시작합니다

(4) 난지구개월서부터는 아침젓을 먹일때에 주던과자를식전젓먹을때에주고 아침젓을 먹을때에 묽은죽을 조금먹입니다 나쯤파 국국물을 조금먹입니다 이러케 삼사일동안 먹여보아서 무사하면 저녁젓을 먹일때에 주던 과자를 낫젓먹을때주고 저녁젓먹을때에 죽과 국국물을한번식 더먹입니다 이러케해서도 무사하면 삼사일후에는 죽을두사시식주고 국국물파 채소국물을 먹입니다 이때서도 무사하면 나흘후에는 흘그죽 두사시식 먹이는대신 흰죽을 한사시식만 먹입니다. 그래서도 무사하면 죽의분량을조곰식 더줍니다.

(5) 난지 십개월서부터는 아침젓과죽을 먹일때에 계란노른자를 한개의 삼분의일을 더먹이는데 한일쯤후에 먹여보아 무사하면 그다음부터는저녁젓죽을 먹일때에도 계란노른자를 한개의삼분의일을 먹입니다 이와가티해서도 무사하면 또 칠팔일후에는 계란노른자를 반개식먹입니다.

(6) 난지십일개월이되면 낫젓먹일때에 죽을더먹입니다 즉 이때부터는 아츰젓 정심젓 저녁젓먹을때 세번다 죽을더먹이는것입니다

(7) 난지 십이개월한동안은 식전젓 낫젓 밤젓을먹이지만 아츰젓과 저녁젓은 조금도 먹이지말고 죽등속만먹입니다

(8) 젓을이되면 오전여덟시에죽 오정때에죽 생선을조금식 오후세시에는 과실을 우유 과자는죽만먹이고 오후여섯시에는죽을주고 밤에는 아모것도 먹이지 안습니다.

이상에 말슴드린것과가튼 방법을 표준삼어서 순서잇시 다른음식물을 먹이면서 조금식젓의분량을 주리면 젓을까지에는 완전히 젓을 떼줄수잇는것입니다. 그러데 난지 만일년까지는 밥이나 단단한것은 먹이지 안토록 해야합니다. 아이가 밥상에 부러서 먹을것을 달난다고 첫돌도안된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것을 만히봅니다만은 이러한것은 결코 막어야합니다 이상으로 사람의젓에 대한말슴을 대강드렷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젓도 먹일수업고 유모도 어들수업슬때에는 부득불 동물의젓을먹일수밧게업는데 사양 나구의젓을 먹이기도하지만 여러가지불편한일이 만허서 사람의젓에 제일근사한 우유로 기르는것이 제일 적당합니다. 다음기회가잇스면 우유에대한말슴을 하랴고합니다.

우리차지

부딧는인사

동대문쪽에서 오든 장님과 서대문쪽에서 오든 장님이 맛부드쳣습니다.

「여보눈뜬사람이 그래 눈먼사람을 처야올쏘」

「아따이냥반 나두눈멀 사람이요 그래 당신은 뉘대이시오」

「나는새문박 박장님이오」

「어—참 반갑구려나는 동문박 최판수요오우리 종종부더칩시다」

(東大門사람 정목구)

라디오

二十九日(月曜)

◇午後六時三〇分 名作이야기 (京城)『파랑새』 金相德
◇同六時三〇分 兒童劇(平壤)『여름밤』 作과指導 반달 完달英會
◇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週間情報
◇同七時三〇分 뉴ー스 銃後美談 天氣豫報
◇同八時 講演『非常時와부인』 梨花專門 宋今璇
◇同八時三〇分 歌謠曲 一、내 채죽내에마젓소 二、海峽의달빗 三、꼿파는綠地 四、불루스는 온다 五、선술집風景 六、放浪曲 七、靑春暗路 金海松
◇同九時 伴奏DK管絃團 倂唱 一、歌謠 가 진양조 나 중모리 다 자진모리 二、倂唱 가 短歌 나 [illegible] 沈相健 丁元燮
◇同九時三十分 뉴ー스解說
◇同九時四十分(東) 時報 뉴ー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十時 地方으로보내는뉴ー스
◇午後十時十分 [illegible](레코ー드)

第一放送

◇午後六時(東) 婦人億
◇同六時二五分(城) 講演
◇同七時三〇分(東) 歌謠
◇同七時四〇分(平) 講演
◇同八時(東) 浪花節
◇同八時三〇分(東) 長唄
◇同八時五五分(東) 浪曲라디오

三十日(火曜)

◇午前六時(東) 라디오體操(第一放送에依함)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家庭메모 日用品時勢
◇同一一時一五分 家庭時間『어린이의皮膚病에對하야』 趙漢英
◇正午(東) 時報 (東) 吹奏樂 一、行進曲『星條旗』 藤井弘也作曲 二、序曲『步哨의警報』 크로도미ー르作曲 三、圓舞曲『포스톤』 라벨作曲 四、北京風景『馬車를타고』 山內彪雄作曲 五、幻想曲『마스코트』 오ー드란作曲 異樂吹奏樂團 指揮 辻順治
◇午後零時三〇分 뉴ー스
◇同四時 뉴ー스 職業紹介
◇同六時二五分 講演(全國中繼) 張鼓峰事件에參加하고 朝鮮軍司令部附陸軍步兵大尉(通譯) 富永龜太郞
◇同七時 同
◇同七時三〇分 뉴ー스 銃後美談 天氣豫報
◇同八時 趣味講演『朝鮮各道風習이야기』(一) 李克魯
◇同八時三〇分 漫談『실업는친구』 石友三作 金元浩 孫一平
◇同八時五〇分 베이올린과피아노 소나타作品二四 베ー트헨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 第二樂章 아다지오 몰트에스프레시뽀 第三樂章 스케르조 알레그로 몰토 第四樂章 론도ー알레그로 마논트로포 베이올린 文學準 피아노 金元福
◇同九時一〇分 西道歌謠(京城) 一、赫漢歌 二、夢金浦打鈴 三、山念佛 四、朴淵瀑布 金玉仙 大笒 金永根
◇同九時一〇分 西道歌謠(平壤) 一、놀량 二、사거리 三、중거리 四、경사거리 崔明仙 李鵬烈
◇同九時三〇分 뉴ー스解說
◇同九時四〇分 (東) 時報 뉴ー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ー스

第一放送

◇同一〇時一〇分 [illegible]
◇午前六時三〇分 [illegible]
◇正午 (東) 吹奏樂
◇午後一時 (東) [illegible]
◇同六時 (大) 婦人億 [illegible]
◇同六時二五分 (東) 講演
◇同七時三〇分 (東) [illegible]
◇同八時 (東) [illegible]
◇同八時三〇分 (東) [illegible]
◇同八時四〇分 (東) [illegible]
◇同九時 [illegible]

長篇小說 愚氓 【118】

朴泰遠 作 洪祐伯 畵

이때까지의梗槪

인봉파 재수가한께 남이 게뛰어난 김화수가 기장천 말한번에게도 숨기고잇는 비밀—그것은 자기가 백백교교주 전영호의 아들이라는 한개의 사실이엿다. 교주는 어려서온 배성룡을 소키여인 것 올지 안흔 일만을한다 그러면서도 아들 김화수에게만은 조코 또 착한 아버지다 그것이 화수의 마음에는 즐더 슬프고 도괴로운것이엿다. 신천온천서 우연히 최건영의 남매와 장수산에서 며칠을 놀고, 화수가그로 맺어한것은 자기집안을 이러틋 비웃는 최지게 한 백백교에 대한 복수엿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사랑하고잇는 벗, 김화수가 바루 백백교교주의 아들임을 몰랏다 그는누이 옥천이의 장래를그에게 맛기려고 남매가 함께 서울로 올라왓다. 그러나 이를 알고 화수는 몰을 괴하여 석왕사로 갓다. 결코 옥천이가 마음에 업던 까닭이 아니다. 도리혀 그는 목숨을 걸고 옥천이를 사랑한다. 그러나 옥천이의 오래비 최건영은 자기의 아버지인 백백교교주를 영원한 원수로 삼고 복

들을 따라 안에 잇는건영의 집으로 들어갓슬때, 작년 가을부터 병석에 누어 신음하던 건영의 조부 최수부는 마츰내 목숨을마친다. 건영은, 자기 조부가 임종시에 일러주는 말로, 비로소 그가 삼십년전백백교를 미더온것이며, 벌서가 까히 하던 집안이 그로말미아마 파산지경에 어르것을 알엇다. 그는 처음 안 집안비밀에 인선 놀라고슬혓스나, 다음에 그가 스스수를 맹서슴고 아니냐? 한수의 마음은 괴롭고 또 슬펏다. 그는 사랑하는 옥천이에게서 멀리 떠러저서 오직 마음으로 그의 행복을 빌리라—애닯게 생각하는것이엿다.

이러한때 한편 지비산속에 이상한 노파가 나타낫다. 어린자식 몽룡이의 다리를 고치려고 그산속에 세일헤동안 새벽가러 옥수를 바치어 온 조왕을 사는 장씨를 보고 그 노파는 아이의 다리를 고치려면 그전에 「세가지 일」을—첫째 큰딸 시집을 보내고 둘째 춤가해 서울로 올려가고 셋째 삼천명의 말을 사람파 사괴야한다고 그리고 그리기 위하여는 그달중안에 새우재로 가서 꽃린 문 젊은이를 맛나 그의 지지를 바더야한다고 일러주엇다. 그말을믿고 몽룡이의 아버지 홍서방은 새우재로 갓다. 오랜동안을 기다려 그는마침내 「풀린 문 젊은이」와맛낫다 그러나 그는 다른사람이 아니다 흑가 집안의만치 못한재산을 노리고 엿는 백백교 괴도이엿다……

세가지 일 (1)

엇저것서 빗지 닷든 소리가 들린다. 여름밤 아홉시면 초저녁이라 하겟지만 촌사한 시골 거리는 이미 기름 발동어서 집에는 행인도 드물다. 면사무소 마즌편에 조합이발소만도 어딘지 둘을 닷는거지 나 한 마리 조급하여 손님이 하나 좌지와서 홍서방은 지금제 빼들게 기거는 손을 놀리는라고 골똘이다.

「아야—」

서울가서 공부를하다 여름방학이라 나려와잇는 차진사댁 아들이 갑자기 기거를 피하야 고개를 아프로 숙이며 소리를 질럿다.

「아니 웨?」

홍서방은 이발기계 떠비데인 끄를 한번 드려다보고 의아스러히 무럿다.

「아 거기 좀기 낫다고 안햇던가?」

「아 어렷지 그래 조심해햇는데……어디?」

화생의 목덜미를 자세히 드려다 보고

「아무러치두 안쿠먼 거꺼지 달렷게지.」

「잠깐 단게 뭐요?」

「그래두 아무러치두 안흔데……오, 엇저두 재우하네」

다시 기계를 놀리며, 홍서방은 문득 생각난듯이,

「참, 동경 들어가 공부 하면 방학 업는 학교가 다시 잇수……웨?」

「아—니, 구장네 아들은 이번 여름에 안나왓스니 말이야?」

「그건 제가 나오구시처 안호니까 안나와지, 웨, 방학을안 한겐가?」

「참, 약혼 했단 말이 잇스니 그거 정말이유? 홍서방…」

「약혼이라니? 누구허구?」

「그, 구장네 아들하구 말이야」

「구장네 아들? 구장네 아들 하구, 누구하구?」

「누구하구라니? 아, 금순이하고 말이지」

「우리 금순이 하구?으, 벵말이 다 도네 그래 누가 그래?」

「누가 그러긴? 모든들 그러든 걸 들엇는데……아 정말 약혼 안햇수?」

「약혼이 무슨 약혼이야 도무지 그런 말은 금시 춘문인데……」

「그럼 둘이서 자기들끼리만언약이 잇섯다는걸 내가 잘못 들엇나? 그래두 난 꼭…」

「아니 저이들끼리 언약이잇섯다니?」

머리를 다 깎고나서 기게를 장아프로 들고가다 말고 홍서방은 고개를 돌려 화생을 흘깃이 본다.

화생은 아모것도 모르고 엇는듯시픈 홍서방에게 객적은말이나 하지 안헛나? 생각하며

「아 시체말로 언애지 뭐유? 으레 다—청년 남녀란……」

홍서방은 이발기계를 장속에다 너코 빈것물을 풀어 들고서 면도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자

「그 무슨 당치 안흔 수작—참 내딸이라고 그러는게, 아니라 금순이가 결단코 그럴 아이가 아니지.」

「혹시 이후에누가 또그런 쓸 적생을 하고 말한다음에 니라구 일러주게 업는 말이라도자꾸 떠돌면 재미 적은 법이니……」

면도를 들어 화생의 얼굴을 일짜로 쳐와 밀며 그는 문득 지비산속 노파에게서 아니 듯고 와다는 말을 생각하여 보앗다.

아닌 장씨가 지비산에서 맛나본 노파도, 가울안으로 큰딸 시집을 보내야 한다고 말하엿다. 물론 구장 아들하고라면 당하라만은, 그러케 된다면 자그, 이제 옐일곱인게, 연애라니 기도 어의는 업지만.

(노파가 말하는게 바루 구장 아들이라면 딱 들어마첫지만, 혹시 딴사람이라면,아무리 구장네가 우리안례 청혼을 하더래도 들어줄수는업는게 아닌가?……)

사실, 구장보다 더한이가 청혼을 하더래도 못드주는 업다고, 홍서방은 혼자 마음에 작정이다.

保健 紙上病院

保健部陣容 (가나다順)

內科 [illegible] 先生
金東益 先生
朴炳來 先生
朴鍾濬 先生
朴建源 先生
外科 白麟濟 先生
鄭求忠 先生
皮膚科 吳元錫 先生
眼科 公炳禹 先生
申聖雨 先生
小兒科 李先根 先生
李聖鳳 先生
方斗煥 先生
產婦人科 尹泰權 先生
許信 先生
耳鼻咽喉科 李日永 先生
保健部主任 金炳植 先生

淋疾療法

전세계적으로 만연된 임질은 우리인류를 위협하야 사회적으로 큰문제를 이르켯슬뿐아니라 이병으로 고생하시는분이 부지기수이므로 이병의치료법을 간단히나마 소개합니다.

×

임질치료에 가장중요한것은 환자의섭생인데 이것을도외시하는 환자에게는 모든요법이 무효입니다 첫재는 몸을안정시키고 특히 골반내장기(骨盤內臟器)의 생식기에 충혈(充血)이나 울혈(鬱血)이 되지안토록 각종운동경기(승마, 등산, 수영, 장도여행)을 금해야될것은 물론이오 성교와성적흥분을 절대로피해야됩니다 둘재는 소화잘될 담박한 음식을섭취하고 짠것 매운것, 고기 기름진것 술(酒)을피하고파일, 우유등 음료를많이섭취하면 소변을증가시켜 안으로부터 고름을씻처내는데 유효합니다.

약물요법에잇서서는 고래로치료약이 그수효가허다하나 실효적작용은 보잘것업고 겨우소염(消炎)진통(鎭痛) 이뇨(利尿)의 효과에 불과하야 다만자각적증상을 경감할뿐이더니 근일발매된『G-U-사이드』와『프론토질』등이 현저한효과가잇습니다.

그리고여러가지 주사약은 급성임질과 임질합병증에 효과가이스나 너무남용(濫用)하는 경우 이업지안습니다.

뇨도점막(尿道粘膜)은 그구조가특수하야 치이한임균이 특수한병적변화를 형성하는 까닭에 국부치료가 합리적임은 여러말할필요가업습니다. 국부에 주입용하는약품은 강렬한 살균력과 조직에대한심달성(深達性)급 국소(局部)하거나 세척료법에서 사염(消炎)과 수렴(收斂)하는 작용이잇는반면에 점막을자극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한가지약으로 이러한여러가지조건을구비하기는어려움으로 각종약제의 성질을잘리용하야 치료에 노력하여야됩니다.

이러한 주입요법을 매일二一회시행하면 급성임질의 태반은 三四주일에 경쾌하게되야 다만 이른아츰에 약간의 분비물(分泌物)이잇슴에 불과하고 다시치료를 계속하면 四五주일에 임질균이 업서지게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나은것이아니니 만일 이때에 치료를중지하면 재발하는 일이 적지안습니다 그리유는 표면에잇든임균이 죽는까닭에 염증이업서저서 얼른보면 다나은것가트나 뇨도(尿道)에 만히잇는요도선(腺)속에 남어잇는균이 뇨도주위염(尿道周圍炎)이라는것을 어르키게됨으로 다시재발되는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료법이잇지만 그만약하며 불행히임질에걸리게되거든 될수잇는대로 하루밧비 곳처야되고 다소간 시일이 걸리드래도 계속하야 꼿까지 치료해야됩니다

(皮膚科 吳元錫先生)

問議上注意

問議하실때는 住所 氏名 年齡 症狀 男女別 愛讀新聞 名等을 明記하시고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 朝鮮日報保健部로보내시오 形便에따라서는 直接本人에게로 回答해드립니다.

肺患 必讀 診斷常識

당신은……

●접접스럽게 해가지안는가
○약간기침과 담이 나오지는 안는가
●三十七度一二分의熱이每日午後부터 夕陽에걸처서 나지나안는가
○盜汗과 不眠이 繼續되지나안는가
●어쩐지 몸이무겁고 胃腸도나쁘고 食慾不振의 날이繼續되고 動悸가나고 숨이갑브고 억개가결리고 가슴이 아프지나 안는가

……이것은肺病初期의症狀입니다……

●기침이 만어지고 담이 만코 때로血痰이 석기지나안는가
○貧血과 疲勞이 더하고 顔色이나빠지지나안엇는가
●每日三十八度가차운 熱이나지나안는가
○頭痛、不眠、喀血、泄瀉、便秘 胸痛가튼 苦痛이업는가

……이것은肺病의第二期症狀입니다……

그러나 悲觀마시요 正當한療法으로

肺患相談室

肺病은治療됩니다

사람이 肺病에 걸렷다하면 死刑宣告나 바든것처럼 悲觀해서 藥과 醫師만으로 病을治療하려고 한다 그것을및기로 無效한藥과器械를販賣하기도하고여러가지 廣告로肺病환자를詐欺하는商人이만타 詐欺師가 아모리거짓말을 하여도 藥장사가 아모리 甘言利說을 버거러도 속어서는 안됩니다 結核菌을 죽여서 肺病을 낫게한다는 藥과 注射와 器械는 아직 世界어데서도 發見되지 못하엿습니다

肺病은治療된다

肺病은 다만自然으로도라가므로써 治療됩니다. 若草가 맹동하는 初夏、淸澄한空氣、淸潔한空氣 끌고르죠이는陽光、自然의 草根木皮 거기에는 肺病患者를救할偉大한 慈愛의손이 펼처잇습니다.

그릇된養生法

治療할수잇는肺病이 왜안낫는가? 그것은 貴下의 養生法이 잘못되엿기때문입니다. 貴下는 日光療法을 잘못하고 잇지안습니까、自然을 妨害하는藥과 器械를 쓰고 잇지안습니까 몸은 좋은空氣는……。

正當한療法

肺病으로 알는이는 只今 곳『朝鮮日報で見た本下さい』라고 써서 葉書로 左記의 寺로 보내주시요。 釋迦님의 金言을 基礎로해서 正當한治療法을 가르친 松永佛骨師著『治療の原理』와 藥草療法『光明のあなたへ』의 二冊을 無代로 보냅니다. 速히 이 가르침에 依하야 肺病을 退治하시요……

無代進呈 肺病治療의原理

(目錄)

●結核菌과 그傳染
○結核菌의保有者
●結核菌의天然免疫
○왜肺病이되엿는가
●釋迦의金言
○肺病은반드시낫는다
●結核患者에게는藥이잇는가
○大自然의공은으로
●治療의原則
○信仰에對하야
●藥의藥用方法
○水療法의方法
●日光과空氣
○安靜療法
●榮養療法에 對하야
○喀血의原因과止血法
●發熱의原因과解熱法
○咳嗽法과祛痰法
●盜汗과그療法
○不眠과安眠法
●泄瀉와便秘療法
○腹痛에對하야
●肺病은全身病이다
○療養生活者의注意
●肺病과和漢藥
○누구나採取할수잇는藥草
●家庭에常備하는藥草
○野菜와果物의藥効

—以上—

上記內容의『肺病治療指導書』와 藥草療法을公開한『光明のあなたへ』의 二冊을 只今곳朝鮮日報에서보앗다 써보내라고써서 左記로葉書로 보내면 肺病患者의 幸福을 爲하야 無代進呈함。

大阪府 布施市 功德山 德林寺

電話布施三四五·振替大阪三三五

A—3

クラブカテイ洗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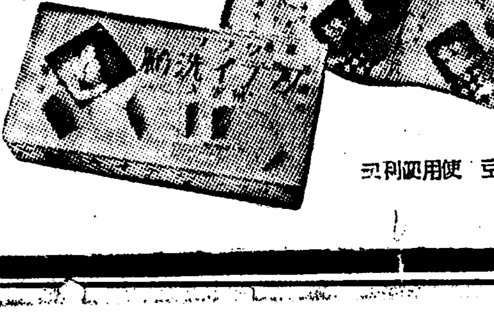
구라부 가데이

어지는美養素

洗顔料하나로…… 여름을타지안어

이 제부터만한……살결의여름、여드름、죽은깨、땀띠따위는 表皮의不充分 또는汚垢로생기는것입니다. 試驗으로クラブカテイ洗粉으로洗顔해주시요。 毛孔속의기름때가淸掃되고 엷어지는、美養素가榮養이되므로 여름을타지안는健康肌가됩니다。 特히땀으로 시달리는 애기들의살결에는 말할나위업시좃습니다

아루가리性이 업고 絶對로 無刺戟한 性質……



一匣(大包入) 四五전

全部袋入이므로 使用便利함 經濟的입니다

智異山探險記

智異山行第三日……(四)

大隱의律宗樹立

● 李 殷 相

師의弟子로 秋月能禪師라는 이는나지면 이禪室에서 參禪而 乘하고 밤이면 大石을지고 二 十里寶藏寺로나려가 六祖塔에

理學者이그 [illegible] 名을얻은것이엇는 假說이다 그 러나 理學者 은 여기서 出 身한어떤高僧 으로 [illegible] 아 이름이 를 남긴것을분명이 더 올흔것이 다

間에 智異山 李朝中宗年 [illegible]

[illegible] 하야 [illegible] 을하던 이나 그무서운 [illegible] 아니한것 뵈가 머리를 숙이지 아니할것 이야 지금 [illegible] 前에 그의 [illegible] 이라 부르는 [illegible] 로 남 아잇거니와 [illegible] 에 잇서서나 다름없이잇서서나 [illegible] 아 [illegible] 各自의所企 가 [illegible] 돌아갈일은업 슬것이다.

저스님 누구신고 어이 [illegible] 저러한고 [illegible] 하야 크신道를 이루다네 우리도 무거운짐을지고 제 [illegible] 을 이루리랑. 어바거 [illegible] 가튼이도

[illegible] 의 出身이오 [illegible] 의 主人 [illegible] 다大德이엇던 아니고 [illegible] 에서 생각하자 안 [illegible] 大人物은 누구보다도 大 [illegible] 것이다. 그로因하야 [illegible] 戒律로 佛敎全般에 [illegible] 를 남기게한 [illegible] 로 여기 이 [illegible] 을 이저서는 안될것이다. 戒라는것은 三學中에서도 首位를 占領하는것이어서 제가 어떠한宗派에 屬하던지 [illegible] 하거나 [illegible] 하거나 共通的으로 奉持하는

[illegible]

學藝

朝鮮文學精神檢察 ⑥

―世界觀、文學、生活的現實―

安 含 光

한때 어러케된다면 이야기는 全然 달러진다.

웨냐하면 氏가 性格의分裂이라던가 主體의 崩壞라던가 意慾의 世界와 藝術世界와의 相剋을말할때 그는 確實히 歐洲的인 現實的 時代的特質의相現에서오는 藝術的苦悶의 內容的傳達이엇던것인데 그저漠然히 나의 作品에도 어떠한 程度로 思想性과 致化性이 잇는것이아니냐(?)라는 意味로서 抗辯하는 一般的인 原則論의 [illegible] 論하는 作家의포―즈가 어느듯 『그것이다』는것은『時代』의 特質을 [illegible] 地에로 參居轉落되여 버렷다는것을 意味함에이기 때문이다.

언제어느때 讀者는 作品의思想性과 致化性을 無視했다는것가!

其實『藝術』그 自體를 自己自身의 피(血)와가티 사랑하는外에 아무런 社會的意欲도갓고잇지안는 純粹한 自由的思考人──藝術家의 作品에도 思想性과 致化性은 잇는法이다.

問題는 氏의『自己告發』이란 것에잇섯고 이『自己告發』이란 것은 氏가 말하는『主體의 再建』이란것과 分離해서 생각할수업다는곳에 잇섯다.

그리고 이『主體再建』이란것이 [illegible] 되어지게된 所以는 아메서 [illegible] 바와가티 그러지안허도 主體化되여 잇지못한는 世界觀이 오늘이라는 時代的特質아래서보담 苛酷한 自己剝奪의 刑人숙을 加하지안허서는아니되게되엿다는곳에 緣由되여진것이 아니엿든가!

이러하야 主體를 再建함에依하야 하나의生活的能力에로까지 昇華될수잇는 血肉的인 世界觀을 獲得하려는것일때 그는必然으로 時代의基本的條件과의 成就의 交涉을 생각하지안흘수는 업고 따라서 그는 돈키호―테的遺傳이라든가 否定하는 個人的情熱이라든가 또는『告發』이라는 文句의口頭禪으로 達成되어지지못할것도自明의理가 아닌가!

『告發文學』을위하야 有利할때 主體의再建問題를 내걸고 不利한때 一般的인原則論에로 轉身함에依하야 그를避難하고 도로에서 내던저버리는것가티 安易하고 도危險한일은 업다.

이에잇서 우리가氏로부터알고 싶은것은 氏의 이른바『主體再建』의性格──即再建以前의『主體』의 正體와 再建意欲의 根據와 [illegible] 『主體』에 對한 明確한 設定의 提示이다.

左右間 主體建立의 問題는 社會的經濟的條件이 未熟한데에 [illegible] 物質的인것에로까지 昇華시키기위한 모멘트─即『存在』에 對한『意識』의 能動性의 角度에서 본다든지 또는 藝術世界固有의 創造的特殊性에서 보다든지 다가티 必要한 價値의課題가 아닐수업다 그가 所期의 結果를 가저오기위하야는 一切의 聰殊性과 虛勢와 그리고 메―기의 이른바『感傷性』을 버려야한다 그리면 그다음 客觀的立場에서『世界觀의貧困』을 嘆하고 그의必要를 大聲疾呼하는 傾向을 어떠케해결것인가?

나는 이에對하야도 그의皮相性때문에 左袒할수업다고생각하는者다.

그러타고해서 이러한

傾向

이 原則에잇서 決코 그르다는것은아니다

하나 하기조흔말이라고 그리고 一般的인意味에잇서 아모리 誤認업는말이라고 時代的苦悶이라든가 主體에對한 省察이라든가 高踏派의浪漫만을 放送하는것가티 有害한일은 업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지금에잇서 그러하다고 나는밋고 切實히 생각하는者이다

웨냐하면 지금의 現實이 要求하는것은 世界觀放送의 職業的選手가아니라 먼저 그를放送하는 그自體부터가 眞實로 그와相應된 主體의 生活的基礎와 生活的能力을 가지고잇는가(?)하는것에對한 誠實한 自己省察로부터 하나의 可能한 그리고 現實味잇는 世界를 發見 開拓하는 努力이기때문이다.

素朴主義的叫喚! 그는 지금도 一般作家에게 잇서 藥도안되고 毒도안되는 念佛이라는 것보다는 지금에 잇서서는 一般良心的作家로하여금 袖之不動의 地精에로 몰러넛는 境遇도 잇다는것을 생각할必要가잇다.

勿論 이도 하나의必然이라면 苦悶이란것이 首肯못할배도아니다. 하나 單純한

文化

를 推進시키지못하는거와 마찬가지로 單純한『觀念』어런것이 文化를 推進시켯다는 史的實例를 보지도못하였다.

世界觀의 必要라든가, 現實의 眞實한 描寫의 價値라는것들은 第三者의 警示를 기다릴것까지도 업시 充分히 察知하면서도 依然히『行動의世界』를 發見하지 못하고잇는것이 오늘 朝鮮文壇의性格이라할진댄 우리는 그의 原因을 생각해보지안흘수업게된다.

어늘『作家의無能』에로 돌려버리고 만다면 問題는 簡單할것이다. 하나 그『無能』의理由는? 하고 생각할때에 決코 그러케 簡單한것만도 아니다.

그는 첫째로 思想을 喪失한 現實的地盤의위의 彷徨이고 主體的인意味에잇서서는 意慾의世界와 作家의 生活的現實의 相距의 탓이라고 생각한다.

어러케볼때 作家는 먼저 意慾의世界─現實의本質에對한 認識의意慾와 相距하지안흘수업게된다. 그러타고하는것은 意慾의世界와 作家의生活的現實의相距를 조키고 그 구렁을 메우기위하야는 무엇보다도 먼저, 現實의本質에對한 正確한認識으로부터 出發하지안흘수 업는것이기때문이다.

知性의意味限定

―헤―겔의歷史哲學에비추어―

⑧ 金 後 善

近代哲學主義의 知性도 一般的으로 懷疑的批判的精神이여서何等創造的行動的인 知性이아니라고를 是非를 하지만 그것도亦是 傳統的文化에 對한 理性的崇拜의 擊破『歷史的現狀』에對한批判裁定의 精神으로서 그自身의 創造的役割의 時機를가젓든것이다.

批判을爲한 批判이라면 몰나도 文化를爲한 批判이라면 이는이미 어떤創造的意味를가지고 잇는것이다.

하물며 今日가튼 어떤歷史的時機에서서 우리가 將히 優越한意味에서 主張하여야할知性에 잇서서야 贅言을要할배랴?

知識人은 누구보담도 歷史의 主體이다 今日 知識人은 무엇보담도 自己의歷史的主體性을自覺하여야한다. 自己의歷史的主體性을自覺할때 그네에게要求된知性은創造的이며 行動的이 안일수업다. 요새우리는 知識階級에對한여러가지 是非를들고잇다. 知識階級은넘우나弱하다. 넘우나逃避的이다. 넘우나 無關心하다. 知識階級은넘우나 高踏的이다 한때 非實踐的이다 知識階級은넘우나 非實踐的이다.

過去의是非는 知識人의學者的인 非行動性에 向하고 잇섯다. 그러나 今日의 是非는 知識人의 高踏的인 非實踐性에向하고잇는것이아니라 知識人의『行動性의 여러가지樣式』에 關하고잇다. 今日의 知識階級은決코 高踏的學者的이아니다.

今日의知識階級은 일직이高踏的學者性을脫皮하야 實踐的行爲에參與하엿다가 거기서다시 어떤새로운 段階에잇는것이다.

그네는 過去의知識階級과다니세 決코 知識人의 文化的主體性을 自覺지못한것이 아니다 (勿論全體는아니다)。이것을 現實的으로 自覺하야 여러가지로 文化的意慾미테서 여러가지로 實踐的行爲를햇스나 結局거기서 그들은 여러가지事態에依하야 아무진發한結果를 獲得치못하엿든것이다. 여기서 그네에게 생긴것이虛無요 諦觀이다.

今日의 知識階級은過去의그들과달너서 行動하지안흔것이아니라 行動은하나 그行動의 樣式이逃避的 諦觀的無關心이다.

이것은 바로知識階級의 行動樣式의 今日的段階이다. 果然그러타면 요지음知識階級에게이런行動樣式을준 根本的原因은어더에잇슬가?

이것은 틀림업시 時代的特殊性 即時代的不安이겟다.

그러나 知識階級의 今日的行動樣式의原因이 이외가티 外在的이라하야도 우리는 決코그네들에게 無條件하고 부드러운同情만주어서는안된다. 萬若우리가 知識階級의 어떤行動樣式을그저 同情만한다면 文化는 停滯되고 歷史는 暗黑할것이다.

漢詩

題梧桐 押陽 桐岡考選

佳作之二 平東郡長山郡五樂洞 金秉穆

萋萋萋萋向朝陽
不啻龍門百尺長
吳館焦枝人得蔡
周家戲葉弟封唐
逢秋幾閱鳴蟬感
待日將看老鳳祥
流水高山頻入夢
伯牙清韻此中藏

多島海記……(六)

歸去來

鄭 芝 溶

海拔一千九百五十米突이요里數로는 六十里가넘는 山꼭두에 千古의 靜秘를 감추고잇는白鹿潭 푸르고 맑은물을 흠벅 비오시듯 悠悠自適하는 放牧牛馬와함께 마시며 한나절노닐엇습니다. 그러나 내가 올라오기를 쏘기로 한것이 바다이야기를 쏘기로 한것이오니 선선하오나 山의好消息은 이를 생략하겟습니다. 아무든 山行一百二十里에 適度히 疲勞한 탓이나 아니올시 나려와서하룻밤을 잘도 잣거만은 漢拏의 滾滾한 바다에 울어나려오는 三神의 흐름 香氣가 코에 알른거리는것이요 高山植物이 다음날에 (시레미)의 달고신 맛에 다시입안이 고히는것입니다. 우리 다시 山峽에서 나려온 香氣와 아름다운 소리는 어디로 [illegible]

나다. 깨끗한 물속에 背面을벗게 삼어 海風을 쏘이며 한 [illegible] 을 어떤 그산꼬 순하고 사람따르는 高原의 마소들이 나의脈搏을 꿈파가티 臨고지나며 꾀꼬리며 휘파람새며 이 틈도 모를 진기한 새들의아 름다운 소리가 나의 귀를소 란케하는것이 아닙니까. 노픈 香氣와 아름다운 소리는 어 진사람의淸德안에 가주어잇는 것이라고하면 모든東方의賢人들은 저윽이 괴로운 노릇이엿 을것이, 내가 山에서 나려온 다음날 무슨 德과 가튼 香 秀에 켜질수 업는것으로 놀 려 짐작할罪하옵니다. 海女들

이 일할때를 기다리다못하야 海女하나를 부르고 물속을들 어 뵈지안켓느냐고 하니까, 『바지간 사민 우리를 배 타그네에 일하려 가쿠다』 우리 서울서 온사람이니 구경좀 식히라니깐, 『우경해그네에 도주쿠강?』 돈을 내리고하면 넣주도 엿 다고하니깐, 『경하민 우리배영 갓찌탕 양가쿠가?』 돈을 내고라도 볼만한것이 겟스나 어찌지 너무도 Bargain's bargain(賣買契約)的인데는 海女에 대한로 맨티시즘이 업어지는것이다. 그러고 그를 떨어서 배를타 고서 가다가는 濁水가는 午 時배를 노치고 말것이 아닙 니까. 우리는 獎洛을 달리듯 아 한편에서 海女라기 보답 은 海少女一團을 차저냇스니 호―이 호―이 휘파람소리(물 속에서 나오면 呼吸에서 절 로 휘파람소리가 난다』에 뒤꿈치를 붉게 봉긋 뛰오고 물속에 들어가는 재바리

海南風情記

듣고 나는것입니다. 濟州에 온맏딸을 다차지안엇 겟습니까, 물속에 드는時間이 대개 三十秒假量이요 만허야 一分동안이면 나옵러마다 청 파 미역 소라등속을 홈켜들 고 나오는것입니다 그러면서 며칠며 어야기하며 하는것이 니 우리는 그들이 못예로기 여울리오기를 기다리고 엇섯 던것입니다. 영웅화세줄 뒤여 보이는 海女들이 人魚와가튼

모양을하고 올라오는것입니다 潛水鏡을 어마에 부치고 소 중의(潛水衣)로 簡單히 重要 한데만 가리운것에 지나지안흔 스나 그만한것으로도 自然과 勞動과 直接格鬪하는 女性으 로서의 風致에 實히 한가 조 금도 업는것이요 실 로 美麗하게 發 達된 폼이 스 포―쓰나 體操 로 어든 肉體 에 비길바가아 니엿습니다. 그 러고도 天眞한 부끄림을 숙어 지못하야 약간 빵을 붉히는것입 니다. 우리는 그중 에 한少女를 보고 그것을 (潛水鏡)무엇이 라고 하느냐고 물으니깐 거 리가 우다」 眼鏡을 『눈』 이라 고 하니 海女는 눈을 벗 을 갓고 소라와 전복과 조 개가 기여다니며 미역파 청 파가 포르고 潛槽가 울어이 상스런 海底속으로 하로드멧

자래식 나려가는것입니다. 하 도 귀엽기에 少女의 肉眼을 손고락으로 가르치며 저눈은 무슨눈이라고 하노 하니깐 『그눈이 그눈이고 그눈이고 눈입주기 무시거오깡?』 少女는 혹시 섭섭한것이나 아니엿을가? 그러나 내가옷 어버리니깐 少女도 바로 못 엿웁니다. 勿論 물에서 금시 엿든것이엿웁니다. 소라와가티 잡어내온 人魚처럼 첫처서서 어 생기엿스나 그보다 전은 것이데 꾸정이라고 얼웁니다 하나에 얼마나고 물으니 『一錢마씸』 이것을 어떠케 먹는것이냐 고 물으니 『이거 이제곳 쫄며으면맛조 수다』 『애―이거 먹음서』 맛이조코 아니조코간에 우리 는 얼굴을 찌그리여 少女들 까주기만하랑이면반됫이먹으라 고 별르고잇노라니 少女는물 멩이로두쳐이를까여 알맹이를 손톱으로 잘 발리서두손오 로 공순히 바치며,

의 고통대접을 無色하게 할 수가 업섯습니다. 하엿는지며 던 少年하나이 少女의 두틈 밥을 잡어다려어가지고 물로 내동대치며 허여달어나는것입 니다 少女는 사꽃 나려스더 니 보기조케 다이빙委勢로뛰 여들어가 멧간통이나 헤여서 少年을 追擊하야 잡어가지고 밥기버슨 등을 냅다 갈기며 『이놈의새끼 무사경 햇시니 !』 하도 痛快하기에 손벽을 치 며 歡呼하엿더니 少女는 두 를바을 빼서까고 동실거리며 『무사경 박수 첫시니?』 물에서는 少年이 少女의 敵 手가 될수업는것이엿다. 그 야 우리도 바다와 濟州島女 의 敵手가 얘초에될수업섯기 에는 濁水로 航路를 잡지안 엇겟습니까 多島海에도 제 일 아름답고 奇絶한 코―스 로들이 多島海의 낫과 밤을 파 밤파 새벽파 아츰을 모 조리 縱斷하면서……―歸라보 ―!

新刊評

待望의詩集

『山제비』를읽고

李 燦

民村兄의序나 林和兄의 跋文을 기다릴것도업시 詩人 世永은 벌써 한卷의詩集 아니 몃卷의詩集을가저잇는 사람이다. 詩道二十年 그長久한 年條로보아 그러하고 그간 그의 그꾸준한 精進의 量과 그가 어미 到達한지도 오랜 그詩的水準으로보아 또한 그러하다. 하것만 그는 이제야내노흔 이한卷의詩集에조차 『내가 詩集을 갓는다는것이 주제넘다』 云云의 謙辭를 부치고잇다. 不過 一二年의

年期와 불과二三十篇의 習作類로도 詩集詩集하고 詩集의에만 汲汲한 우리詩壇風景속에서 이는 正히 一點의 珍異가아니랄수업다. 나는 事實의 모든 文壇的知番들속에서 世永 그만치 謙遜하고그만치沈重한 사람을 따로 記憶하고잇지못하다. 또한 그만치 淡然하고 그만치 厚情하고 그만치 誠實한 사람을 想起함 聰明도갓지 잇지못하다.

今刊『山제비』亦 自適해서보

려 約束코저한다.

恒常 보다 노프곳을 志向하고 午睡를 放擲하는 山제비의 아 름다운習性을 우리는 미더도조흘것이다.

總販賣所 京城府堅志町三二 漢城圖書株式會社 振替京城七六六○番 定價 一、二○ 送料 一二

新刊紹介

◇四海公論 九月號 發行所京城府堅志町一二一〇 四海公論社 振替京城八六○番 定價三十錢 (第四卷第九號)

◇實話 第一號 發行所京城府 [illegible] 一九八 朝鮮實話社 (第一卷第一號) 定價 [illegible]

◇朝鮮水產報第十號(月刊) 發行所 京城府長谷川町 朝鮮水產會 振替京城八二一八番 定價 [illegible] 一部十錢

文藝短篇

閑夜月 (十四)

張 德 祚 作

崔 根 培 畵

여러가지 설움(雪恨)에 [illegible] 어려운 [illegible] 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太祖創業艱難 世宗守成休明成宗一 [illegible] 不意 [illegible] 王 [illegible]

[illegible]

『父主後宮 杖而殺之 [illegible] 流而殺之 [illegible]

凶荒大臣 [illegible] 文子[illegible]收 [illegible] 拔人之位 [illegible] 罰 [illegible] 刑 [illegible] 等 [illegible] 先 [illegible]

不聊生 不 [illegible] 也 宗宗兄弟妻妾 [illegible] 其制 父 [illegible] 日 [illegible] 人道 [illegible]

『生民一時之苦 [illegible] 大奸 [illegible] 一朝遭起 [illegible] 晉城大君 成宗大王之親子也 [illegible] 而有德 [illegible] 以欲推戴晉城大君 [illegible] 遣 約日 [illegible] 宮 [illegible] 官 [illegible] 推戴以扶宗室之危(생민의한 [illegible]

이상[illegible] 넘간에 경사를 레로써접 하사 충성됨과 의롭움을 기루 신것은 꼭 오늘을 위하심이라 진성대군은 성종대왕의 친자이 시오 어질고도 덕이게시와 안 박기 촉망하여 구가의 도라오 는바라 이에 써 진성대군을추 대코저하여 의병을 일으키고자 도에 [illegible] 날을정하고 경 사로 모힐터이오니 조정에잇는 공경과 백집사는 맛당히 숙히 다 불웃 세상 [illegible] 는까닭 이다.

여기까지 읽자 신씨는 죽지 를 나려노코 멀거니 안젓다. 그처럼 이해하고 사랑하던 사 람 연산은 보위를 빼앗기고 교 동의 안짓소에 죄인되여 가처 잇다는 사실이 넘우도 염려하 게 가슴을 찔럿기때문이다. 『마마 마마는 벌써 이곳에 업 사옵거나, 아 어곳에 오시지 안사옵거니 어 자모의 정을 어이아시리』

살은闘病報告

오래동안別別藥에 속앗든 저도

(高敞) 張 成 福

……그동안 죽 다는약은 다써 보앗다 하다시 피 자꾸한시일 을두고 치료를 해왓스나 조금 도 낫지안흔채 가 貴社의藥으로 根治가되 엇스니 이런 敬이잇겟습니가 하도 기뻐서저 의同病者에게흠 의體驗을알고 하고자하는바입 니다. 결혼지한 六年가량되오니 처음 겐고―루 一瓶中瓶을쓰니 [illegible] 기에는오줌에 고 약이것넘시 되고 좀더잇기 파 꼭곱틀것가 기게되엿습니다 [illegible] 도三ヨ日에개이 가 돗든다그것 [illegible]

그래서 二瓶을 거듭계속하야全 入햇드니 열흘 만에 아주 개 이고 몰도 가 니다……

병게되엿습니다 ……여러삼아남 어지를 다쓴후 飮酒를해도 무 방하며 이번엔 절기에도 再發 되지안흠으로회 실한 근치의기 쁨을엇게되엿습

학생시대의過誤를 청산하기까지

(京城) 申 萬 成

……가정의불화 도 하나의원인 이엇지마는 나 의그릇된생각의 로 學生時代는 참으로 난잡한 生活을보내엿습 니다 인제는多 幸히 그生活을 청산하고 진실 한사람이되여 [illegible] 가 [illegible] 질은 아주慢性 고질이되야 전 도암담한 나의 압길에는絶望이 되야 이때문에 治療問題도주저 [illegible]

하고잇섯습니다 이遠隔한病의치 를 救해주신것이 貴社의 겐고― 루의藥이엿습니다 [illegible] 웬만한藥쯤으로는 [illegible] 佐藤先生의局所 [illegible] 治療에는 [illegible] 法에는 [illegible] 리지안은 [illegible] 하엿습니다 短 時日안에 [illegible] 의치료비로써根 [illegible] 다함을 아울러 報告하오니 [illegible] 納하심을 바랍 니다……

二重殺菌을

급성도만성도

다는낫만야하

먹는약으로는 절대로 근치가 못되는경험도『부라오殿겐고―루』 의二重殺菌療法으로 치료하면단 시일안에 百發百中으로근치되오 니 그리운임질이병원근이 남 병독부의요도조직에 병균이침투 하고잇는때문이니 그곳을 도려 빼내듯이 젹하기우으로 치 료하면 꼭根治되는것은 정확한 리치가 아니겟습니까! 더구나재 래의치료제는 모도가 단일성능 (單一性能)이엿섯는데 『겐고― 루』는二重으로 작용케될으로려 욱 움흐오니 속히병고에서버 서나실려면부디오곤골도주저마시고 서『부라오殿겐고―루』로치료하 시사근치의기쁨을어더주십시요!

● 약한방울로 단 二分間이면 치 료효과가 나타나는 림질근치약 『부라오殿겐고―루』의 약가는종 類(一號)(二號)(單用)(兼用)(外用)(洗滌用)가 잇습니다 한 一 하오나 보통약… 一圓九 十錢, 十七日分…三圓八十錢의구 별이잇사오며 복보에도자해한하 야 送料는 자신 [illegible] 하고 대 금이함으로도 송의해드립니다

東京市芝區[illegible] 新町十三ノ一 現代藥店 合名會社 浦澤商店 (振替東京二五〇一九)

●통지하시는대로 림질치료 서를 거저드립니다●

日東製藥合名會社製品

이時局에맛당한 큰일한인군이되자

대중의약

림질을根治시키실 여러분! 二重殺菌을 하여야만속히낫는다

이시세에 맛당한 튼튼한일군이되실 여러분에 아직까지도 림질을 完治못하시고 쓰라린세 월을 보내시고 게신니까!

그원인은 모도가 여러분께잇읍니다 주려당한 치료법으로 꼿치시지안코 일시적 언젠제로 치 료하시타업니다 여러분께서는

病院에가서서 진찰을받드시거나 혹은 自宅에서 타도 독가튼 효과를 어들수잇는 의사전문약인 二重殺菌療法의『부라오殿겐고―루』로 치료하시 면 손쉽게 아무작용의 염려업시 단시일안에 근 치되여버립니다 더구나

內服藥

을로 치료를하시는분이 만흐나 권위잇는 최신학설파가치 먹는 약으로는 절대로 뇨도조직(속병하근)에 파무친 림균은 죽지안흠으로 근치가못되는것을 모르시 고 장복을 하시고게시나 늘 再發되고의지안습 니까!

그것은 약기운이 위장속을 통과하여 얼마안되는 약기운이 오줌에 섞겨서 그곳에 작용하는때문 에 그러케 낫지안는것입니다

사람몸은살어잇는

그미묘한정을 잘 해서 재 래의 국소치의실패 (속다병하근)으로는 역시낫 지는 안흠으로 二重殺菌을하여서 병균파 그로 말미아마 생긴고장을 모조리 다스리주는 二重 性能을 가지고잇는때문에 그러케 百發百中으로 림질환자를 救원하고잇는바입니다.

속히 병고에서 버서나시사 튼튼한일군이되실 려러분은 조금도 주저마시고 얼동한조섭파함께 하로밧비 겐고―루의 二重殺菌療法을 실행하시 사 근치의기쁨을 어더주시며 널니 선전하시사 同病者도 구원하여주시기바랍니다.

K―202

◎朝鮮劇場 八月二十九日封切 [illegible] 『사파전·무저게』

東洋劇場 『二十一日事變』 九月三、四、五日 [illegible] 『ギャバンの 『どん底』』 [illegible] 『かりそめの幸』

朝鮮演劇公演 第二週二十八日부터 前進座日 [illegible] 『波浪境』 2幕 [illegible] 『바―라에티―』 二十景

朝鮮最初의豪華絢爛版 [illegible] 五歲天才少女歌姬 金吉子 [illegible] 特別出演 晝夜二回 낮一時 밤七時半

特別大週預告 任曉鵬作 누가그女子를죽엿나 一幕五場

團成社 電光三四九二番

八日二十九日晝間부터三日間大公開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每日三回興行一回十二時二回開映 三回七時半

佛國고몬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레오마도우 監督 ミルトンの一攫千金

朱と綠 前後篇大會 松竹大船超特作全發聲 島津保次郎 高杉早苗 佐分利信 高峰三枝子 上原謙 オールキャスト 總出演 次週豫告 マルクス一番乘 リンゴの十字火 에프프레칼! 비크·큐우이나 主演

第一劇場 電光 一七五五

日活 黃金座

三、おぼろ夜の頃 二、名乘らぬ母 一、家庭學講座 一の巻 三、善知鳥 二、唐人お吉 一、人生見立帳 梅野井秀男 一座 [illegible] 東西新派總動員 大松竹の至寶 特別出演 南部邦彥 熊谷武雄 五日間 八月廿七日ヨリ

松竹マネキン 8/29日より9/4日まで上映時間表

ニュース	12・05―12・22	3・23―3・40	7・00―7・17
一合戰	12・25―1・52	3・43―5・10	7・20―8・47
愛ユーモア	1・55―2・12	5・15―5・32	8・52―9・09
戀二青春 待草	11・00―12・01 2・17―3・18	5・35―6・36	9・12 10・13

次週 松竹花ある氷河 メトロ春に背くもの 實演リズム合戰

明治座

水稻의 落水期는 어떠케 適正할가 (上)

今年度의水稻狀況은 오직今後의 天候如何에 依하게되엿는데 立毛中의 人工的操作의하나로서 落水의 適期라는것이 가장重要하다 落水期가 빠르고느진것은 그品質, 收量에多大한影響을 미치고도 收穫後의 米質을 決定的으로 左右하는것이다 이點에서 農林局에서도今年度稻作生産改良의 實施細目中에 落水期의 適正에 對하야特히强調하고잇는데 이落水의適期라는것은 大體어느때를가장適當하다고하는가

×

(水稻) 落水의 適期라고하드래도그地方에依하야多少多條으로落水好한 灌漑等에依하야 그適期를 決定하는것은 참으로難事中의難事일것이다、그러나 一般으로水稻는穗가傾垂하게되면 落水하는것이普通이므로 이것이 落水期에對한우리들의常識이되여잇다卽「傾穗期」가 落水期의 標準이되여잇는것이다 그러故로 水稻各品種의出穗期를알고 各地方을따라 그前後를落水의 適期로하면 조흔것이다

×

(落水) 期에는 早期落水와 晩期落水의二方法이 잇다

水稻의 早中晩品種의生育狀況과 其田場의 土質狀態及其他의 氣象條件等을 考慮하야水稻의生育에 完全하게가장適當한時期에 落水치안흐면 아니되므로 各地各樣의 適期가存在할것이다 早期落水라고하드래도 水稻의生育狀況으로보면 早期라고하드래도 落地의다름

(環境) 條件으로보면 亦是適期의落水잇는지도 알수업다 落水期에 關하야 宗博士의말에依하면「開花後徐徐히淺水로하고 穗가多少傾垂하게되면 完全히 排水하라」하엿고 永井博士에依하면 落水는穗揃期에行함을普通으로 하나 所謂花水라고稱하야開花時期까지 灌漑하는일이 잇다 二毛作或은 收穫을爲하여서는 可及的 速히落水하야 土壤을 乾燥케할必要가잇스나 너무일러도조흔것은아니다 出穗及開花時期는 가장多量의水를要하고 其後登熟上에도 實事가만흔것이조흐나 登熟期에는 적어도出穗期까지는 落水를行할것은아니다 그러나落水를오래하면 도리어稻의成熟을妨害하고 品質을損害할憂慮가잇다

도열病權威인近藤氏에依하면 가을落水는 稻의開花가끗나고 多少傾穗한때를 適當하다고본다 但그것은 排水의 良否에依하야 顯著히달르고 排水가 가장 良好한地方에서는 充分히

(傾穗) 하기까지를 기다려 一日落水한 後에도 오래동안 降雨가업는 境遇에는 多少灌漑할 必要가잇다 卽 成熟前의 早魃狀態는 莖葉에서 穗에 向하야 養分流轉作用을 妨害하고 米粒의 肥大를 減할 念慮가잇는 同時에 이때의 冷氣에 伴하야 稻穗의 各部를

開花期에는 가장多量의水를要하고 其後登熟中에도 乾燥하면 不良하고 또 病虫의 分散的 發生을 誘發하야 大害를입는다 乾燥의 影響은 大概이와같다 그러나

(乾燥) 에 努力하면 조흔 것이다도山形縣의 凶作防止 水稻耕種法

改善指針에는 다음과가튼 落水期의 要項을 示하고잇다

(가) 落水가 過히 速하면 米粒의 充實이不充分으로 屑米粃等이 만코 또 玄米는 細實으로 經濟가 깁고 收量이 적어品質을 劣惡케하는이니라 落水를그르키지 안토록 大體穗期에 落水할것이다

(나) 地下水가 노파 稻熟病에 侵犯되기쉬운 土地에서는成

(成熟) (다) 이遲延되고 粗質이 되여 困難하게

(라) 濕田等의 排水不良田

계속

産業

昨年度 農作物被害狀況

面積廿一萬八千二百六十五町步 金額八百八十六萬一千九百餘圓

比前年程度는極輕微

總督府農務課調査에依한 昭和十二年農作物被害狀況을보면 前年의 激甚한被害에比하야 其程度는 輕微하야 被害面積二十一萬八千二百六十五町步被害金額八百八十六萬一千九百七十六圓 (反當被害金額四〇圓〇六錢)이다 이제이를 被害種類別로보면 風水害는被害面積、二十萬六百餘町步(一被害總面積의九割一分五厘)被害金額八百四十二萬七千二百餘圓(被害總金額의九割五分一厘)病虫害는 被害面積 一萬五百餘町步(同四分八厘)被害金額二十三萬二千三百餘圓(同二分六厘)雹害는被害面積四千二百餘町步 (同一分九厘)被害金額十三萬七千餘圓(同一分五厘)旱害는 被害面積二千八百餘町步(同一分三厘)被害金額六萬五千三百餘圓(同七厘)이다 다음에이를 作物別로보면 水稻는被害面積十三萬三千百餘町步(被害總面積의六割一分)被害金額四百九十六萬三千二百餘圓 (被害總金額의五割六分)麥類는 被害面積五萬七千二百餘町步 (同二割六分二厘)被害金額 一百二十四萬七千餘圓(同一割六分五厘) 雜穀은 被害面積一萬一千七百餘町步 (同五分八厘) 被害金額八十六萬八千九百餘圓(同九分八厘)豆類는被害面積 一萬一千三百餘町步 (同五分六厘) 被害金額五十萬四千五百餘圓(同五分七厘)으로서 蔬菜、棉、陸稻、果樹、其他의順이다 다시이것을 道別로보면 被害가 가장만흔것은 平北으로서慶南、全南、全北의順으로 以上四道의被害는 面積에잇서서 全道의八割四分五厘、金額에잇서서 全道의八割八分五厘를占한다

昭和十二年度作物別被害狀況

作物別	被害面積(町)	被害金額(圓)	反當被害金額(圓)
水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田作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右內譯 陸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麥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雜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豆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棉以外의特用作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蔬菜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果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十二年被害種類別被害狀況道別表 被害面積(町)

道名	風水害	旱害	病蟲害	雹害	合計
京畿道	[illegible]	—	—	—	[illegible]
忠淸北道	[illegible]	—	—	—	[illegible]
忠淸南道	[illegible]	—	—	—	[illegible]
全羅北道	[illegible]	—	—	—	[illegible]
全羅南道	[illegible]	—	—	—	[illegible]
慶尙北道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慶尙南道	[illegible]	—	—	—	[illegible]
黃海道	[illegible]	—	—	[illegible]	[illegible]
平安南道	—	—	—	—	—
平安北道	[illegible]	—	—	—	[illegible]
江原道	—	[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咸鏡南道	—	—	—	—	—
咸鏡北道	[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十二年被害種類別被害狀況道別表 被害金額(圓)

道名	風水害	旱害	病蟲害	雹害	合計
京畿道	[illegible]	—	—	—	[illegible]
忠淸北道	[illegible]	—	—	—	[illegible]
忠淸南道	[illegible]	—	—	—	[illegible]
全羅北道	[illegible]	—	—	—	[illegible]
全羅南道	—	—	—	—	—
慶尙北道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慶尙南道	[illegible]	—	—	—	[illegible]
黃海道	[illegible]	—	—	[illegible]	[illegible]
平安南道	—	—	—	—	—
平安北道	[illegible]	—	—	—	[illegible]
江原道	—	[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咸鏡南道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咸鏡北道	[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界煙草優良 小賣人表彰式

【江界】朝鮮煙草小賣人協會江界支部에서는 지난十日午前열한時부터 武德殿內에서 同管內煙草小賣人表彰式을 擧行하엿다 이번 表彰式바든 小賣人은 同支部管內 一百四十五人中 四名이選拔된것인데 그住所氏名은 다음과갓다한다

江界邑東部洞 金寶化
江界邑東部洞 崔應濟
漆雷面豊湧洞 金用坤
干北面南洞 金天福

咸南藁製品大增加

【咸南支社發】咸南道農務課에서는 藁製品의徹底한增産에 注力하고잇든바 이效果는 完全히나타나서 肥料叺은 七月中에十八萬五千五百六十六枚나 生産되엿는데 昨年七月에比하면은 十二萬一千枚 卽三倍나늘엇다 그리고 穀用가마니도 一萬三千五百九十枚로 前年同期의 一百三十枚에比하야 約百倍라는 空前의 增加를보이고잇다 그다음鹽用가마니 繩、細繩等도 모두二倍以上으로 그生産이늘엇는데 이狀態로나가면 今年內로 豫定數量에 達할것으로 期待하고잇다

百萬頭를目標로 養兎大增産

畜産課五個年計畫樹立

朝鮮內의 養兎數는 現在겨우七萬頭에 不過하는데 總督府畜産課에서는 防寒用으로서 兎皮의 需要는 軍需民需各方面에 急速히 增加하고잇스므로 그增産을 計畫中이엿는데 五個年計畫으로써 十四年부터 十八年까지에百萬頭를 目標로 主로 中、南鮮地方農家의 副業으로서 內地産白色種의 增産을 奬勵하게되엿다 그實施方法으로서는 (一)毛皮의 採取處理其他飼育管理를 爲한 指導員의 設置 (二)總督府及道農事試驗場의養兎設備의 擴充 (三)講習會를 開催하야 飼養管理及生産物特히 肉의利用을 圖할것 (四)總督府及道郡農會에 指導奬勵機關의設置等을 實行하게되엿다

種兎斡旋配給

朝鮮副業協會種兎配給場設立

養兎增産計畫에伴하야

戰時下의 必需品으로 또一般實用品으로서 再認識되여온 家兎는 今回드듸여 總督府에서 來年度부터 五個年計畫으로써 그奬勵에 積極的으로 進出하기로 決定하엿스므로 十數年來朝鮮內에서 指導統制를實行하야 副業으로서의奬勵를實行해온 朝鮮副業協會에서는 右總督府計畫에順應하야 直接生産飼育의指導、種兎의斡旋配給、生産加工 技術의普及等에 積極的으로 進出하게되여 今回第一期計畫으로서 各道內二個所의豫定으로 同協會에서 指定한 種兎配給場을選定한다

多量의製叺製繩機

滿洲、需要激增

朝鮮依存의期待에反한補充策

滿洲國에서는 爲替關係에依한 麻袋輸入難의 緩和對策으로서 總督府에對하야 鹽用叺 六百萬枚의 補給을懇請한바가 잇섯는데 이에對하야 朝鮮으로서는 朝鮮內生産能力과 最近增加한內外의 需要事情에鑑하야 當分間이에應하기困難하다는 뜻을回答하엿섯다 이때문에 滿洲로서는 朝鮮依存의期待가 어그러젓기때문에 緊急補充策을 講究치안흘수업는 狀態에이르러 朝鮮으로부터의補充困難은 深刻한 打擊이되엿섯다 그런데 現在滿洲國內에서가장 需要가만흔것은 南滿方面으로 이여는營口方面의 移住朝鮮農을中心으로 增産計畫을 세워 一個年에 一千二百萬枚의 所要數量의生産에 拍車를 加하게될 모양인데 現在此等朝鮮農家만으로는 一年의所要數量을 生産할수 업스므로 滿洲人農民에게 習得시킬必要上 朝鮮으로부터 指導者를 招聘하는外에 그增産上製叺機의 購入等도 朝鮮으로부터 大量輸入케할方針이라고傳하며 朝鮮貿易協會方面에서도 이에 注視하고 잇는데 叺製作機와 製繩機의 斡旋買入等에 [illegible]

蓄牛增産計畫 (平北道)

【新義州】蓄牛는農家의 絶對必要資源이될뿐아니라 重要한國策資源이되는것인데 平安北道에서는 總督府方針에依하야 今年부터 蓄牛增産計畫의實行에着手하게되엿다 卽平北의現在蓄牛는 十八萬頭인데 二十年計畫으로 二十八萬頭에 達하도록 하려는것인데 그具體的內容은 爲先 現在의種牡牛一千六百九十頭의 三割五百七頭의 品種을更新하야 優良品種의 生産에 努力하며 更히此를强化키爲하야 義州、江界二郡에 原種牛百頭式을配置하며 增殖方針으로서 蕃殖牡牛를 義州、鐵城、熙州、楚山、江界의五個郡에 三十頭式 配置하고 此優良種牡牛를 種牝牛와交配하야 優良牛의增殖을計畫하야 二十八萬頭에 達하도록 邁進할方針으로 今年부터 實行에入하엿다한다

産業메모

大根의施肥法

大根의生育에要하는養分은 比較的僅少해도조흐며 有機質이 過多하면 葉部가 너무繁茂되며 特히土肥料中에서도 가장만히必要로하는것은 窒素로 加里及燐酸은 少量이라도 조타 그런데 苦味가만코 美味업스면 [illegible] 中에混入이만흘때는 根部가分岐하야 鬚根이만히생기므로 注意할必要가잇다 料의種類는 大體魚肥 [illegible] 使用한것이 가장優秀하고 特히 [illegible] 을主로 하는것이 適當하다 肥料는 [illegible]

(가) 早肥는 大根의質을 不良케하므로 數回에分施한다

(나) 原肥에 多量施肥하는것은 조치못하고 大豆粕과糠粕을 種子에接近하야 施肥하면 發芽가 不良하며 堆肥類를 下部에施하면 分岐大根이 되기쉽다

(다) 肥料는 追肥를 主로하는것이 安全하다

(라) 追肥를主로하는 境遇는 第一回 復肥를 發芽後一週間以內에할것이다

(마) 過度한下肥는品質을 損하는傾向이잇스므로 濃厚한것을 자주施用하는 것이조타

京城穀叺市況

八月秋夕을압두고 新叺出廻는 比較的好調이나 實需는 活潑치못하야 一巡으로 指定會社의 賣價는 不動이요 市中商人側의取引도 地方賣手當 價는 新物五十錢一分內外로 [illegible] 이다

完州棉産好況豫想

【全北支社發】軍需品으로써 자장重視하는 棉花에 對하야서는 耕作面積을 擴充하야 增産을奬勵하고잇는데 完州郡管內에는 아직도 農會의 指揮에 依하야 約百三十町步를 指定區域으로 定하고 奬勵한 結果 發育이 大端히 良好하여 오는바 多少의 雹害、旱魃로因하여 前途로써 發育이 順調로운 形便으로 昨年實收 反當 百二十斤에 比하야 今年度는 反當 百三十斤가량은 되리라고 農會에서는 豫想하고잇다한다

天安蠶業事務擔任者協議會

【天安】天安郡의 蠶業指導奬勵는 春秋蠶 모두 積極增産하여오든바 지난十八日에는 各邑面의 蠶業事務擔任者 打合會를 開催하고 左記事項을 協議하엿는바 今年秋蠶掃立數는 一萬五千一百九十九枚인바 昨年同期에 比하면 六千一百八十九枚나 增加되엿스며 繭價도 昨期에 比하야 高位에 엿스므로 今秋蠶에 當하여는 農村의經濟가 매우潤澤하게 되리라한다

協議事項
一、秋蠶飼育指導에關한件
二、新規蠶業指導에關한件
三、蠶種共同催靑及稚蠶共同飼育에關한件
四、防乾飼育奬勵에關한件

昔時 몸이弱한

何首烏라하는사람은 山老의가르침을바더

交藤의根을술로服用하야 百六十歲의長壽를누리다

몸의精根을 도두는根源

古代의醫聖神農은 漢方醫의始祖로몸소山野를 跋涉하야 풀입새와 나무뿌리를먹어 가로움을 견디고 試驗하여 藥草를 매드러내엿다 傳한다。

옛 날 何首烏라는사람이엇서 生來로 적은體質이 虛弱하야 五十八歲에 이르도록 帶妻치못하고 山에드러 師를 따러 道術을 닥더니 어떤날 山野를 跋涉하다가 藤의 두그루넝쿨이 相交相解함을 보고 奇妙히여겨 그뿌리를 캐서 가지고 도라와 諸人에게 무러 아는者 업더라

其 後山老의教를 바더 이를 粉末하야 술에타서 服用하엿드니 어데지 모르게 몸에精根이 沈靜하야 虛弱體質이 强健體로되여 머리는 거머지고 顔과手足의 주름이 펴서 顔色은불거 젊은사람가티되엿다。

그 리하야 안해를어더 十年內에 數人의 子女를엇고 其子延秀 또한이를服用하엿드니 父子가치 齡百六十歲의 長壽를누렷다傳한다 以來交藤을「何首烏」라일카러 貴重靈藥이라하야 珍重히한다

信 州特産品으로 세有名한養命酒는 靈藥何首烏 보다 더한 저젼 貴重藥草를 數種合製하야 天然自然의 風土氣候의中에서 充分醱酵되여 其精分어 活性그대로含有해엇는고로 服用한즉 五臟六腑에 숨여드러 全身의血行이 順調로되고 身體의蕊으로부터 精根이 强하게되는고로 虛弱者를 튼튼어하야 老衰를 防止하고 健康者는아무려고 달푼일에도 疲勞를 모르는 精力이 넘치는 身體가 된다고 愛用者의 칭찬함을 밧고잇다。

滋養强壯劑로서
◇根氣薄弱의人
◇强腦强精의目的
◇胃腸衰弱의人
◇虛弱體質의人
◇神經衰弱의人
◇不眠증이잇는人
◇疲勞倦怠의人
◇産前産後의婦人
◇貧血冷症의人
◇病後回復期等

小瓶進呈

意外로好感을주는 深味하고 먹기조흐다는 山仙酒로서 芳香美 것을 實物로紹介하기爲해서 養命酒試飮用小瓶一本을 無代奬呈中이니 東京市澁谷區上通り四丁目九番地 養命酒本舖出張所로 葉書로 내주시요

全國의藥店、百貨店、食料品店에잇소、品切인때는便宜上東京出張所로 前金은送料不用、代金引換은謝絶합니다。

攜帶用 一圓五十錢 大 三瓶 三圓 德用 四圓

信州上伊那郡南向村大草
釀造發賣元 養命酒本舖天龍館
東京市澁谷區上通四丁目九
出張所 養命酒本舖出張所
電話澁谷二八四七番
振替東京六八八五五番

からだ
弱い軀を强くする
塩澤家傳 養命酒

盛夏를 모-던으로 꿈이자!

그것은―タンゴ의 七色中에서

第一潑剌한―爽健色―의

太陽化粧 입니다

바다의볏―山의볏―거리의볏―찬란히

쪼이는 여름의 볏헤서는―볏거름을 볏거름으로

서 潑剌하게 美化하는―爽健色―의健康美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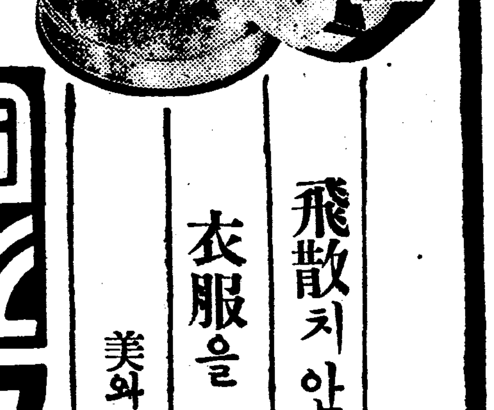
第一 그럴듯한 여름의 魅力이요―美입니다!

크림과・化粧水와・白粉의三重美作用이一品으로 한번에되는・美와魅力의 스피-드化粧料!

タンゴドーラン

당 고 도

TANGODOHRAN
얼골色에달아 더어여쁘게되는七色
一般婦人에게는……肌色
빗이 흰 분 은……白色
빗이푸르죽죽한분……淡紅色
히지안는분은……早熟色
蒼白한 분 은……爽健色
빗이붉은분은……新鮮色
尖端的美容에는……明朗色
定價 各色 一個六〇錢
海外郵送料加算



固形タンゴドーラン

飛散치안코、쏘다지지안코

衣服을 더럽히지안코 携帶至便케 固型으로된

美와 魅力의 모-던 粉白粉!

●訪問化粧에
●오피스化粧에
●핸드백 化粧에
●하이킹化粧에
●優美비로-도파후付 七色・各四〇・七〇錢

株式會社・宇野達之助商會

天災克服의萬全策
災民救濟金積立
十年間에百五十萬圓限度로
慶北道의劃期的方案

【慶北支社發】 경북도 낙동강(洛東江) 연안일대에 대수재해(大水災害)는 해마다 빈번하야 [illegible] 계속되여 그참상은 아직 세인기억에서 사라지지안엇거니와 금년에는 의외의 한발(旱魃)로 아마 수재는 면하엿스나 지나간 [illegible] 살하야 금후 십년간에 백오십만원을 저축하고 그금리로 풍수한재해(風、水旱災害)민의 구조를 하기로하고 그구제범위에 대한 시행규칙을 근근발표하리라고한다

元山商議員選擧戰
朝鮮人選擧人多數

【元山】 원산상공회의소 의원총선거는 구월이십일로 박두하야 오는바 이선거전은 벌써 전개되여가는데 한가지 흥미는 [illegible]

拘置監內서急死
遺族、豫審判事處로非難

【新義州】 [illegible]

地方人事

[illegible]

新上再建에邁進
市場移轉云云은虛說

【新上】 [illegible]

鎭南浦海岸에 三屍體漂着!

【鎭南浦】 [illegible]

誘拐魔의二女性
金品詐取타被逮

【鎭南浦】 [illegible]

水害로因한滯貨!
元山驛에三百車
滯貨를完全消費키爲해 當分間貨物取扱을制限
元鐵當局의窮餘策

【元山】 [illegible]

忠州中學校設立次
準備委員會組織
忠州公職者大會에서

【忠州】 [illegible]

忠州中學建設費로
萬圓喜捨
숨은篤志家

【忠州】 [illegible]

定平에도復興色
災民救濟會活動으로
各方面同情이輻湊

【定平】 정평군정평면은 이번의 수재로 면내동리로서 피해를당하지안흔동리가 업스며 사상자도 적지아니한수에 달하엿스며 피해액만도 거액에달한다 그런데 무엇보다 당장에 먹을것이 업는 이재민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할까하는것이 문제되여 지난십칠일에 정평면유지가모이여 정평면수해이재민구제회(定平面水害罹災民救濟會)를 조직하고 각방면으로 활동하는중이며 지난이십일에도 임원회를 열고 여러가지를 토의하엿는데 그 회의임원과 이번기부한 사람은 다음과갓다

▲任員 [illegible]

▲寄附人芳名 [illegible]

城津商議選擧
오는十月一日에

【城津】 [illegible]

飮酒끄테言爭타
同席人을毆殺

【[illegible]】 [illegible]

照明彈

[illegible]

警官에服務年限
五年以上勤務前에는退職不許
平南道警官轉職防止策

【平南支社發】 [illegible]

長篇小說
林巨正【155】
洪碧初 作　金能超 畫

피리 (三十六)

[illegible]

이때까지梗槪

[illegible]

醫學講座

醫學博士
中井先生 創製

性醫學界의大權威인
醫學博士中井先生께서
多年苦心硏究하든結果
强精、補血、强腦劑
遂完成함

生殖機能이衰弱해지고、頭痛、不眠症、神經衰弱等으로 苦痛하시는분은 青年、中年、老年을勿論하시고 左記事項을 必讀하시오

青春男女의性慾減退와其原因

[illegible]

홀몬의作用

[illegible]

中年期男女의 早老原因은

[illegible]

强力홀몬劑 ホルモーゼ의偉力

[illegible]

注文은直接本舖로

[illegible]

服藥報告實例의一部

[illegible]

發賣元 東京漢洋藥學硏究所

귀병과코병에

耳鼻病을 알코계시면 고통도섬함뿐만아니라 頭腦가 낫버저서 일에能率도나지 안코 드디어 生存競爭에 지게되시오며 더구나 生命까지 위험한병이오니 속히 家庭에서도 간단히 短時日에 근치되는 「大木(오-기)耳鼻藥」으로 치료하여주시사 全快의깃븜을 엇어주시기를바람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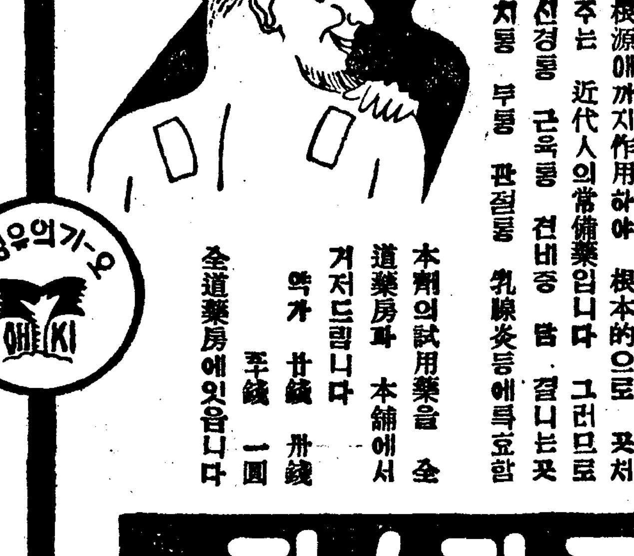
本劑는獨逸의醫藥大家「포리추엘」博士가處方하신藥인만큼的確한靈効가잇는약입니다

귀젓 귀압 耳道炎 耳痛 急性鼓膜炎에 蓄膿症 鼻加答兒에

卄錢·卅錢·五錢·一圓 全道藥房에잇음

發賣元 大木合名會社 東京市神田區錦町 振替東京五四〇番

大木耳鼻藥



쑤시는곳에 결니는곳에

조끔 붙이면 상쾌한기분이들며 고통이 끈낫는 아마-푸라스타-는 藥効가 二十四時間이나두고 持續的으로發揮되는약인만큼 한번患部에 붙이시면 病根源에까지作用하야 根本的으로 곳처주는 近代人의常備藥입니다 그러므로 신경통 근육통 견비중 담 결니는곳 치통 부통 관절통 乳腺炎등에특효합

本劑의試用藥을 全道藥房과 本舖에서 거저드림니다

약가 卄錢 卅錢 五十錢 一圓 全道藥房에잇읍니다

오-가의유명약

아마-푸라스타-

림질에

京都帝國大學化學硏究所에서 發明完成한特許「金屬오르가노졸製法」을應用한 淋界唯一의體內服治淋新藥입니다

本劑만이가지고잇는 强烈한殺菌力과 消炎收斂 利尿 鎭痛작용으로써 아모리 고질이된淋疾이라도 손쉽게 根治식히고잇는바이오니 在來의缺陷이만튼內服藥이나 注入藥 挿入藥 洗滌藥이 감히용납치못하는地域을 차지하고잇으며 더구나 胃腸의고장을일으키는 법이없어 倂發症도防止하고 치료하여줍니다 그러므로 男女의급성만성림질 방광염 섭호선염 자궁내막염 관절염등에특효한

약가 一圓八十錢 三圓五十錢 五圓五十錢 十圓(송료四十五錢) 全道有名藥房에잇읍니다만 賣切된때는직접본포에주문하여주십시요

東京帝國大學化學硏究所製

바로-루

經濟戰線의 勇士
林殖銀頭取 放送內容

殖産銀行林頭取는 二十七日午後七時四十分JODK 第二放送으로「經濟戰線의勇士」라는 題下에 放送하얏는바 그內容은如左하다(寫眞은林頭取)

事變勃發以來 이미 一年餘로 지금 戰線은 北支에서 中南支에 亘하야 實로 二千五百餘粁에 達하고 皇軍은 其間 到處에서 未曾有의 武勳을奏하야 上海 南京 徐州를 陷落하고 敵의心臟部라할 重要據點을 逐次攻略하엿스며 이제 새로운 敵의心臟部 武漢三鎭에 對하야 날카로운『메쓰』를 加하는中인데 總督府에서도 經濟戰強調週間을 實施하고 銃後의國民이 모두 長期抗戰의 決意 [illegible]

近代戰
은 非常히 多量의物資를 必要로하는 同時에 近代戰은 武力戰인同時에 이것을支持케하는 經濟戰이다 近代戰의 物資消耗는 如何히 激甚한가 [illegible]

經濟力
[illegible]

十億圓
[illegible]

物資中
에서 外國으로부터 輸入하여야할것이 [illegible]

不得已
輸入의減少를 각할수밧게 업게된다 現在 이러한 情勢에 잇스니 國民으로서는 輸入에 對한 需要를 徹底的으로 抑 [illegible]

第一線
에서 [illegible]

武力의
[illegible]

其一節
[illegible]

經濟力
의 [illegible]

現在以上의 增稅는 明年度엔 안한다
戰費財源은 公債에만 依키로
大藏省當局方針決定

【東京】大藏省에서는 支那事變勃發後의 現行稅法의 複雜함에 鑑하야 그根本的改正과共히 第二段의 戰時增稅를 行할可否에 對하야 研究中이더바 現下의 經濟情勢에잇서서는 現在以上의增稅가 技術的으로도 困難하고 또基本的理由로서 生產力擴充政策을 促進하야 戰費의充足을 主로서 公債政策에두는以上 增稅에依하야 物價昂騰을 惹起케함은 避하게될것이라는 見解에達하야 明年度는增稅를 行치안키로 意見이一致되고 池田藏相의同意도 得한터로 即 增稅中止의 主要理由는 如左하다

一、戰時下의 戰費捻出은 今後原則으로서 公債政策에 依할 것

二、現在以上의 增稅는 物價基準의 動搖를 惹起케하고 經濟界의 混亂을 惹起하야 公債消化政策上에도 動搖를生케하는 結果로된다

三、事變關係事業利得에 對한 特別稅 增稅政策은生產力擴充政策上에支障을 招來케된다 現行所得稅의 增徵範圍에止함

四、現行稅法이 複雜하므로稅制改革을伴치안는 增稅는技術的으로도困難하니 根本的增稅는一般稅制改革과共히 戰後에具體的으로考究할것

金利水準化問題
鮮銀積極態度
公債消化코저 一般預金利下
高率預金訂正·各機關間調整

朝鮮內의 金利水準化에 對하야서는 總督府에서 積極的意向下에各金融機關과도 個別的으로意見을 交換하고近間(今週中에)懇談會를열어 總督府의 意向을表明하는同時에 그實行에 進出케로되엇는데 鮮銀도朝鮮內의 中央銀行으로서 金利의水準化에 對하야서는 重大關心을가지고 研究中인바 大體如左한積極的意見을가지고잇서 同問題에對한 鮮銀의積極的態度는 자못注目된다

一、公債臺消化키爲하야 一般預金金利引下

二、地場銀行의高率預金의訂正과 地方支店名義 預金整理

三、甲乙種滿銀行의 預金金利 調整減少

四、信託配當率의引下(乙種預金金利까지)

五、都市金融組合의預金利下(乙銀預金金利까지)

自動車運輸統制
朝運系에서別會社設立하고
全朝鮮트럭綜合經營

朝鮮運送의「트럭」運輸事業의 經營에 關하야서는 鐵道局監理課의 自動車運輸統制에 基한積極經營의 要望이잇고 最近重要化한 燃料問題로도 綜合經營의 急務等으로 著着機運이 濃化되어 朝鮮運送의 傍系로서 全朝鮮트럭運輸를綜合的으로 經營할資本金五百萬圓의 新會社를 創設케되엇다 朝運에서는 今夏에入한以來 各道의 營業路線의買收를 行코잇는데 이것은 右前提가되는것이오 新社會設立은 朝運自體의 增資와不可分이란 觀察도잇스나 別個로 分離하야 新設함도 可能하다고보인다 右新會社의 首腦部에는 朝運增田取締役의轉出이 確定的이라한다

爲替取扱商況

全朝鮮郵便局의 七月中 關東州、朝鮮振出 爲替의 狀況은 朝鮮振出이 十六萬九千九百二十四圓、關東州振出이 二十二萬七千七百七十一圓으로 結局五萬七千八百四十七圓의 流入으로되엿다

內外地硫安
五十萬屯增產

日本硫安取締役支配人 渡瀨完三氏는 大阪支店長을 同伴하고 二十八日『아가즈기』로 入京하엿는데 當面問題에 對하여 如左히 말하엿다

一、外安의 輸入中止問題는 需給으로보면 重大問題이나 各社의 增產進行도 進捗되어 本肥料年度에는 大體로 極端한 不圓滑이업시 해나갈수잇는 것이다 [illegible]

로 大體 前年보다 五十萬屯 程度의 增加를 豫定이다

一、朝鮮의 配給問題에 關하야서는 말할것이 업다 配給合理化의 見地에서 北朝鮮에서 裏日本에對한「配給 代身의 南朝鮮 移入」等은 다아는일이다 總督府 關係에 對한 人事와 協議를 하기爲한일이다 朝鮮에 對한 日本硫安의配給實務에 對하야는 格別히 日本硫安自體로서 直接販賣하지 아니하고 特約店中心의 現在대로 進行할豫定이다

硫安中央組合
創立總會
廿九日에完了

昨年의 硫安統制以來豫定되어 잇든 朝鮮中央肥料配給統制組合은 旣報와 如히 二十九日午後一時부터 黃金町朝鮮빌딩에서 創立總會를 開催하고『멤버-』인 三菱商事、住友、片倉、及三井物產、三菱販賣、滿化、及總督府에서 尾崎技師等 關係官과 入京中인 日本硫安支配人渡瀨氏도『옵서-버-』로서 出席하야 組合規約其他의 創立事項을 協議하고正式으로 組合의 設立을 보앗다 이미 實質的으로는 創立前부터 配給事業을 하고잇섯스니만큼 別한 變化는업스리라한다

羅津取引所實現?
먼저滿洲國과合議할터

東滿北朝鮮의 特產을 對象으로한 羅津取引所의 設置는 地元民으로부터 要望이잇고 朝鮮自體로서도 北朝鮮吞吐港의 擴張에 從하야 所謂 取引所를 設置함은 有名無實化할 念慮가잇스므로 어느點에 依하든 [illegible] 式으로 決定할터이다 滿洲側에서 牡丹江乃至佳木斯에다가 取引所를 設置할 必要가 잇을 能然性이 잇는 東滿滿洲側과 合議한後 正式으로 近間 [illegible] 決定이라한다

米棉融資條件

【紐育二十七日發同盟】米國은爲替의 世界棉花界 待望의 米國綿花融資計畫은 今二十七日 經濟棉花市場에 發表되엿는데 一九三八年度棉花融資에서 大引後農事調整局에서 發表한 新融資計畫의 骨子는 如左하다

一、商品金融會社는 八分之七인치 미들링의 棉花에 對하야 平均一封度八仙三十의 融資를 한다

一、融資條件으로는 棉花의品等에 依하야 十六分之十三인치로 미들링 棉에 對한五仙二十을 最低로 一인치八分之一 以上인 미들링 棉에 對한 十仙七五를 最高로하는 格差를둔다

一、右融資計畫에對한 資金은 二億弗을 支出하엿다

株式
新高價로 猛騰

今日의市勢 (廿九日)

前場暴騰

前週保合圈內에서彷徨하든市勢는 休日中에 체코問題의 暗雲에 歐洲政勢의 急轉을 惡化를 傳하고 漢口攻落戰에 去益有利展開를 好感하야 沸騰하야 一擧夜放高의 新高價로 東新百四十四圓六인 一圓八高 鐘紡一百三十四圓八인 一圓三高에 好勢寄付後六安占領을 傳하야 新規買物續出로 結局東新百四十六圓二、鐘紡一百三十六圓三에 暴騰大引

後場續强

後場은當限落의 短期一時間立會인데 當地는 東新百四十六圓七인 五高 鐘紡二百三十五圓九인 四低로 寄付後 東新은六圓八、鐘紡은 六圓丁에 續強大引

戰局進展上放

【大阪電話商通】南支의 三鎭攻略戰局이 大進展된것을 好感하야 北濱市場諸株 一齊三圓의 上放을 演하엿다

買氣熾烈

當限納會當日에 休日을 지난今朝는 漢口陷落期待 歐洲政情不安을 好感하야 買氣는 熾烈하고 夜放高로 一轉上放 急騰되엇다 그러나 一方에는 어로서 大市勢出現을 꿈꾸는側도잇는모양이나 漢口陷落市勢가 相當히 [illegible]

軟派反落期待

夜放高를 演하야 保合은上放되고말엇다 戰局進展、歐洲情勢不安再燃等을보고 當限納會에잇서서 賣方이『籠』한것이 原因이라겟다 그런데問題는 市勢가그餘勢로서 一路大市勢化하는냐 或은 此邊이絕頂이되어 押目다운 押目을보이나에잇다 弱氣側의 歸은 모든好材는 織込濟이고 漢口陷落市勢이로서 出現되엿이니까 新東『民』는 꼿낫다고 말할수잇고 東新二十五圓戾 鐘紡三十六圓戾에 對한 中勢反後의反落을期고잇는모양이다

國債閑散不變

【東京電話同盟】株式의反發도 何等影響이업고 織込하야 氣乘薄閑散에 다모두 釘付保合을 示하고 外債도依然活氣薄으로 依然無賣買이엇다
▲甲號五分 一〇三、〇〇 四五 ▲十九年物 一〇三、〇〇

期米
當中臺割
崩壞

前場續落 今朝阪堂三十五 [illegible]

降雨로 好感

後場崩落
後場은 三十二圓十四錢인 一丁低로 始集後連續하야 五節〇二錢에 前場落

近方에도 [illegible] 갓 [illegible]

[illegible]

平年作은 無疑
內鮮稻作狀況發表에 依하면 朝鮮은 大略普通이나 [illegible]

仁川在米減少
八月二十八日 仁川在庫米는 前週에 比하야 合格米는 二七、八七九叺의 減退를 示하엿는데 在品을 細別하면 左記와如하다
▲玄米四斗入 一七、二八八叺 五斗入 一、〇三五叺 ▲白米四斗入 五、九五三叺 五斗入 一三〇叺 ▲正租 五一二四一叺 ▲大豆 二六、六四九叺 ▲平麥五〇叺 ▲小麥二、一九〇叺 ▲其他米四斗入四一〇叺 五斗入 五九八叺 ▲雜豆一、三一二叺 ▲糯米三四三叺

仁川軟化
朝鮮內의稻作發表는 反映이되고는하나 內地稻作發表도 亦是意外로良好할을傳하야 市中人氣는 이로因하야軟調化하엿스나 目前의厄日을압두고 突込警戒하야 賣物이업고도內地入注도杜絕되어 買氣는膠着不振이고 一般은來月을기다리고買漁諸하얏는데 㑹賈薄으로市勢도 五錢低이엇다 ⑫穀良三等 三一、〇〇 四等三一、四〇 銀坊主三等三一、〇 四等三一、

米正
低迷
突入警戒

京城軟調
內地의 稻作은 豐潤이라는 發表로 所持側은豫想外의 일이라고 唐慌해하는때에 政府의古米拂下는 近日에實施한다는說과 厄日을 압두고 颱風의 念慮도 一掃되여 降雨는 도리여 好調續讚 人氣化하고 市中에는 賣物이보이나 內地入注不振으로 買氣가업고 衆하야 定期의軟調로 唱價도 五錢低이엇다 ⑫穀良 三等 三一、二〇 四等 三一、〇〇 一等白米一三、九〇

木浦不變
內地 稻作의好成績發表는 相當히 人氣를 軟化시키엇스나 目前의 厄日을압두고는 關係上 適價를 豫想하고 一般은 內地正米界의 動向을 注視하는모양이다 內地入注杜絕로 買氣는 一層委縮되여 市勢도 前價同様으로 不變이엇다 ㊥銀坊主三等三一、六〇 四等三一、七〇 一等白米一三、七〇

群山釘付
內地와朝鮮의稻作狀況發表는 어미織込되어 人氣에아모런刺戟을 주지못하엿고 買賣決定도 內容不透明으로 市中人氣는氣迷이엇다 政府古米拂下는近日中에行하리라는說은 奧地所持側을 相當히動搖시켜엇스나 아직目前許多한天災期를 압두고 低價에는賣惜하야 市勢는前價同様으로不動이엇다 ⑫穀良三等 三一、五〇 四等 三一、一〇 一等白米 一三、五〇

大邱不勢
內地稻柄은 豫想外의 好成績發表에 不拘하고 奧地는依然히 强硬하나 內地入注杜絕로 閑散場面이며 必需側의 當用準備뿐으로 市勢도 各地漸貫의 軟調를 옮기여 十錢低이엇다 ⑫穀良三等 三一、一〇 四等 三一、一〇 一等白米 一三、五〇

釜山低落
依然한 內地入注杜絕로 低迷狀態인데에 內地稻作成績發表는 예상외로 良好함을 傳하야 賣氣가 出現되엇스나 二百十日、廿日、白米等의 波瀾에 對한 天災期가 남엇스므로 突込도 自制하야 出物이 期待하든 深押은 不許이고 結局 十錢低로 겨우下支이엇다 四等三一、八〇 一等白米一三、六四

今日財界 (廿九日)

◆米	(單位錢) 今日後場 前日後場
仁川期米先限	[illegible]
大阪期米先限	[illegible]
京城(一等)白米	[illegible]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株 (單位十錢)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鐘紡	[illegible]
◆商品	
綿絲	[illegible]
人絹	[illegible]
砂糖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illegible]	[illegible]
中限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海外經濟 (二十七日)

[illegible]

銀行券 (二十七日)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金利 手形交換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鰯油粕 麥粉

◆阪神鰯粕 [illegible]
◆阪神鰯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東京金銀價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正租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朝取主要株取組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朝取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各地期米 [illegible]

綿糸 · 棉花 · 人絹 · 生糸 · 砂糖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東京砂糖 [illegible]

京城物價 (廿九日)

[illegible]

趙俊鎬取引店

京城 金益證券 仁川 益康